News p/3
'메르스 병원' 뒷북 공개

metro®
메트로 2015년 6월 8일 월요일 제3231호 www.metroseoul.co.kr

News p/5
삼성서울병원의 굴욕

최지성 제 꾀에 제 발목

업종	건설(52.29%), 상사(47.29%)	패션(36%), 급식식자재(30%), 건설(25%), 레저(8%)
주요주주(2015.6.5)	삼성SDI(7.18%), 이건희(1.37%), 삼성화재(4.65%) 등 최대주주총지분 13.65%, 국민연금(9.98%), 엘리엇어쏘시어츠(7.12%)	이재용(23.23%), 이부진(7.74%), 이서현(7.74%), 이건희(3.44%) 등 최대주주총지분 52.24%, KCC(10.18%)
총자산(2015.5.26 합병공시)	26조1556억원	8조1833억원
총자본(2015.3.31)	13조9405억원	4조7119억원
보유주식 장부가격(2015.3.31)	상장사 : 12조9895억원, 비상장사 : 5514억원 삼성전자(3.51%), 제일기획(12.64%), 삼성SDS(17.08%), 삼성엔지니어링(7.81%) 등	상장사 : 3조7510억원, 비상장사 : 485억원 삼성생명(19.34%), 아이마켓코리아(0.47%), 삼성중공업(0.13%), 웅진홀딩스(0.06%), 한국경제신문(5.97%)
매출(2014년)	25조3295억원	5조1300억원
시가총액(2015.6.5)	11조7476억원	26조5950억원
합병 비율(예정)	0.3500885	1

과잉충성 합병추진에 이재용 三星대관식 암초
엘리엇 우호지분 25% 더 모아 반대땐 합병 무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폴싱어 엘리엇매니지먼트 회장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삼성 3대 승계 작업'이 삐걱대고 있다. 예상치 못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의 공격에 삼성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컨트롤 타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율 확대에 집착한 나머지 기업 미래가치와 시장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 엘리엇의 삼성물산 경영참여 선언으로 비상이 걸렸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성공을 위해 정보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찮은 분위기다.

합병 주총일(7월17일)까지 엘리엇이 우호지분을 25% 정도만 더 모을 경우 사태는 심각해진다. 기업 합병은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주총 참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합병을 할 수 있다. 즉 3분의 1이상이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엘리엇이 이미 7.12%의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25%정도만 추가로 확보하면 합병 여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엘리엇이 지난 4일 '경영참여 목적' 지분공시와 함께 삼성물산의 합병비율과 보유 주식에 대한 현물배당 등을 요구한 것도 이런 작업을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사태가 조금만 더 심각하게 흐르면 최 부회장의 책임론까지 대두될 태세다. 삼성 비서실이 20년간 공들인 '이재용 회장 만들기'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서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되면서다.

삼성은 지난달 26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합병회사명 삼성물산)을 발표하면서 지주사체제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합병이 완료될 경우 삼성그룹의 출자 구조는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전기·삼성SDI→제일모직'에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단순화된다. 그러나 '엘리엇 이슈'가 튀어나오면서 일이 어떻게 흘러갈 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엘리엇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서도 합병을 무산시킬 수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총액이 1조5000억원을 넘으면 합병을 철회할 계획이다.

엘리엇이 4일 공시 전에 갖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 773만2779만주는 모두 기준일(5월26일) 이전에 확보한 것이다. 이들 모두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삼성물산은 약 4424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보통주 5만7234원, 우선주 3만4886원으로 현 시세보다 한참 아래라서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총 지분율이 33%인 외국인 투자자들 중 10% 가량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도 삼성이 설정한 1조5000억원 데드라인을 넘을 수 있다. 주당 몇 만원 손해를 보더라도 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을 압박하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물산의 약점은 삼성측 우호 지분율이 극도로 취약하다는 데 있다. 삼성SDI(7.39%)·삼성화재(4.79%)·이건희 삼성전자 회장(1.41%) 등을 합친 삼성측 우호지분은 13.99%에 불과하다. 9.98%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삼성편을 들어주더라도 합병 가결 요건인 3분의 2에는 턱없이 못미친다.

이렇게 상황이 전개된 데는 최지성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 컨트롤 타워의 안일한 판단이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 중심으로 합병작업을 추진하다 보니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합병비율과 합병계약 시점을 잡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대 0.35다. 삼성물산 주식 3주로 제일모직 주식 1주를 교부받는 셈이다. 이는 상장회사 합병의 경우 최근 1개월간의 주가 동향에 따라 기업가치를 평가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을 기반으로 한 계산이다.

현재 삼성물산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8, 제일모직의 PBR은 4.32다. 삼성물산은 시가총액이 순자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제일모직은 4배 이상 고평가 된 상황이다. 합병계약 시점에 삼성물산의 주가는 연간 최저수준이었던 반면 제일모직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이재용 부회장 우호 지분율이 높은 제일모직(52.24%)에 최대한 유리한 시점을 골라 합병계약을 맺은 것이다. 덕분에 자산가치로는 제일모직의 3배 이상인 삼성물산이 되레 3분의 1정도 가치밖에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이는 주주보호 명분을 내세우는 엘리엇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공격의 빌미가 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엘리엇이 삼성의 지배구조와 시장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준비해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20년간 공들인 이재용 대물림 작업이 최지성 체제의 '과잉충성' 탓에 마지막 순간 위기에 봉착한 듯하다. 삼성이 소버린 사태 때 SK처럼 곤욕을 치르다 결국 막대한 국부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삼성 관계자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한 것"이라며 "시기는 양사가 합병할 때 낼 수 있는 시너지와 신성장동력인 바이오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메르스 공기 전파 가능성은 '희박'

한국과 중국, 메르스 바이러스 분석결과 일치 바이러스 변이 증거는 없어… 기존 예방법 유효

한국을 공포로 몰아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의 변이는 없는 것으로 한국과 중국 보건당국이 일치된 견해를 내놨다. 공기 전파 가능성은 없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러스 전체 염기서열 약 3만개에 대해 국내의 바이러스학회,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네덜란드의 의과학연구소 등에 우리의 유전자 정보를 보내서 각 기관으로부터 염기서열 정보에 대한 결과를 공유했다"며 "변종이 아닌 중동지역에서 유행하는 메르스 바이러스와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력이 특별히 높은 건도 아니고 우려했던 공기 전파 가능성도 희박해졌다"고 덧붙였다.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병한 메르스 바이러스는 그동안 알려진 메르스 바이러스 55개 유전자 정보 중 사우디아라비아 분리주 KF600628와 99.82%로 가장 높은 일치를 보였다.

앞서 5일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광둥성 후이저우 인민병원에서 치료 중인 한국인 메르스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메르스 바이러스의 변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인 메르스 환자의 입국으로 비상사태에 들어간 지 닷새 만인 지난 3일 유전자 분석을 완료했다. 한국보다 3일이나 빨랐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이가 없다'는 이번 중국 측 검사결과는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기관인 젠뱅크에도 등록됐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변이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존의 메르스 예방법을 숙지하는 일이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 메르스 예방 원칙은 감기·인플루엔자 예방 원칙과 동일하다. 평소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마스크 착용은 메르스 예방에 가장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기침할 때에는 침이 튀지 않도록 입과 코를 휴지나 팔꿈치 안쪽 등으로 가리고, 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메르스는 공기 중으로는 전파되지 않으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튀는 침 방울(비말)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에서의 메르스 전파 양상이 중동에서와 차이를 보이자 한국과의 합동평가를 위해 8일 입국할 예정이다. 한국과 WHO 합동평가단은 역학조사, 바이러스 연구, 감염 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합동평가단 운영은 한국의 메르스 진행상황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아직 과학적 규명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메르스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국내·외 전문가와 공유해 규명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사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메르스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과도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메르스 때문에 격리 조치된 제주 낙타들 지난 5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낙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제주지역 모 낙타체험 관광업체가 영업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낙타들이 격리 조치돼 있다. /연합뉴스

운전자 희소식… OPEC 저유가 유지하기로

당분간 저유가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12개 회원국들은 지난 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OPEC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현행 생산량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OPEC은 지난해 11월 회의에서도 산유량을 동결한 바 있다. 정례회의 결정에 따라 OPEC의 생산량은 일일 3000만 배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점쳐진다.

유가는 지난 1월 최저치인 배럴당 45달러를 기록한 후 현재 약 33% 상승한 60 달러 내외에서 거래 중이다. 지난해 6월 배럴당 115 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올해 초 40 달러대까지 급락했다. 최근 반등세를 보인 유가는 60 달러선까지 회복했지만 이후 추가 반등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 OPEC의 생산량 유지로 국제 원유가격은 당분간 배럴당 53~63 달러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정으로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 가격 할인에 나설 가능성이 큰 데다 국제적인 석유제품 수요 증대가 계속되면서 국내 정유업체들의 실적 회복세가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정유사들이 연료비로만 2조원 내외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송병형기자

장창 참사 '442명 희생' 공식확인 중국 후베이성 젠리현 인근 장창(양쯔강)에서 지난 1일밤 침몰했다가 6일 인양된 둥팡즈싱호의 모습. 중국 당국은 선체를 인양해 수색을 마친 뒤 이번 침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96명, 실종자가 46명이라고 공식발표했다. 탑승인원 456명 중 생존자는 14명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한국 도입할 F-35A '치명적 엔진결함' 있다

미 공군의 F-35A 전투기 화재사고는 엔진 결함이 원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F-35A는 한국이 2021년까지 예산 7조 3418억원을 들여 총 40대를 도입하기로 한 차세대 전투기다.

미국 공군 교육훈련사령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공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6월 23일 이륙 중 발생한 F-35A 화재 사건은 '치명적인 엔진 결함'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가량 정밀조사를 해 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기의 엔진 로터(회전날개) 부분이 부서져 조각들이 엔진의 팬케이스, 엔진실, 내부 연료탱크, 유압 및 연료라인을 거쳐 기체 상부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흘러나온 연료와 유압유가 화재의 원인이 돼 사고기의 3분의 2가량을 손상시켰다. 피해액은 5000만 달러(556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사고기는 미 플로리다주에 주둔하는 미 공군 제33 전투비행단 예하 58 전투비행대대 소속으로 훈련 비행을 위해 이륙 중에 꼬리날개 부분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록히드마틴사가 제작한 모든 F-35기종의 비행이

치명적 엔진결함 논란이 일고 있는 F-35A.

2021년까지 총 40대 도입… 7조원 넘어

일시 중단됐으며, 같은 해 열린 영국 판버러에어쇼에서 이 기종의 참가가 취소되기도 했다.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은 지난 4월 27일 발표한 비행 실험 자료 보고서에서 프랫&휘트니가 생산하는 엔진의 신뢰성이 매우 낮고, 고가의 전투기인 F-35를 위한 개선 작업이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 F-35A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계속됨에 따라 엔진 설계를 변경하고 이미 생산된 전투기에 이런 변경사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록히드마틴으로부터 F-35 전투기 2443대를 도입하는 데 3911억 달러(약 420조원)를 지출할 계획이다. 총 40대의 F-35A를 도입할 계획인 한국도 엔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록히드마틴 측과 여러 차례 협상과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해결 가능성을 확인해왔다. 지난해 9월 미 정부는 방위사업청에 공식 서한을 보내 F-35 엔진 화재가 한국 정부의 FX 사업은 물론 전투기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고 밝혔다.

/정윤아기자 yoona1@

발병 18일만에 '메르스 병원' 뒷북 공개

확진·경유병원 24곳, 대부분 SNS상 정보와 일치
유언비어가 사회불안 부추긴다던 정부 주장 무색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시작 후 18일이 지나서야 확진환자가 발생한 병원 6곳과 이들이 거쳐간 병원 1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부분 이전부터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에서 나돌던 병원 명단과 일치했다. SNS상 유언비어가 사회적 불안을 부추긴다며 엄정 대처하겠다던 정부가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확진환자가 나온 병원 명단 등 정보를 국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공개하고자 한다"며 "메르스의 실제 감염경로는 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병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경유 병원을 함께 발표하는 것은 확진환자들의 이동경로를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자 발생 병원의 명단을 공개해 병원 내 접촉자를 보다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또 "초기에 다소 미흡하게 수행됐던 자택격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격리자 전원을 보건소·지자체 공무원과 1대1로 매칭해 책임관리하는 체제를 신속히 구축·운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휴대폰 위치추적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메르스 사태 여파와 관련해서는 "메르스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메르스에 대해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병원 내 제한된 범위에서 감염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지역사회에 퍼지지는 않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실제로 펴고 있는 조치 내용은 사실상 '경계'를 넘은 '심각'단계 수준에 해당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구분	지역	병원명	환자	기간
확진자 발생	서울	삼성서울병원(강남)	17명	5.17, 5.20, 5.27~5.31
		천호365열린의원(강동)	1명	5.17
	경기	평택성모병원(평택)	37명	5.15~5.29
	충남	아산서울의원(아산)	1명	5.12, 5.14, 5.15
	대전	건양대병원(서구)	5명	5.28~5.30
		대청병원(서구)	3명	5.22~5.30
확진자 경유	서울	서울아산병원(송파구)		5.26
		여의도성모병원(영등포구)	6번 환자	5.27
		하나로의원(중구)		6.2
		윤창옥내과(중구)		6.4
	경기	성모가정의학과의원(군포)		6.2, 6.4
		평택굿모닝병원(평택)	14번, 17번, 25번 환자	5.22~6.1
		평택푸른병원(평택)		5.23
		365연합의원(평택)		5.24, 5.31
		박애의원(평택)		5.31
		연세허브가정의학과(평택)		5.29
		성빈센트병원(수원)	3번, 4번 환자	5.27
		동탄한림대성심병원(화성)	25번 환자	5.25~6.1
		메디홀스의원(부천)		6.1, 6.3
		부천성모병원(부천)		6.3, 6.5
		오산한국병원(오산)	10번 환자	5.22, 5.25
	충남	대천365연합의원(보령)		5.26
		단국대병원(천안)	8번, 33번 환자	6.1~6.2
	전북	최선영내과의원(순창)		6.4

"황교안 변호사 비리 제보해주세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인사청문위원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페이스북에 제보 요청 글을 게재했다. 황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5일 밤 홍종학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으나 페친(페이스북 친구)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 의원은 특히 황 후보자가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그의 고액 수임 건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했다.

현재 황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거액의 수임으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2011년 9월부터 17개월간 변호사 생활을 하며 모두 16억 원의 수입을 챙겨 쟁론이 오가고 있다. 당시 황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 119건 가운데 19건의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조윤리협의회 측은 계약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면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피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5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 후보자, 변호사시절 수임 정보 비공개
황교안법 제정됐지만 정작 본인에게 무력

현행 변호사법에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자문계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법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들이 받는 전관예우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문계약이다. 전문가들이 자문계약과 같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황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법무장관 당시 공직 퇴임 변호사들이 수임자료 이외에 활동내역을 의무 제출하도록 변호사법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이른바 '황교안법'이다. 황 후보자는 자신으로 인해 생긴 법의 사실상 첫 시험대상이 됐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미흡한 자료 제출에 대해 "묵비권 수준"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야당 측은 여당에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청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가 국민의 알 권리로서 보장해야 할 내용들을 모조리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이런 정도의 진행 상황이라면 8일 예정된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日 징용지 세계유산 등록 '9일이 고비'

한국과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강제 징용시설이 포함된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를 놓고 오는 9일 2차 양자협의를 재개한다. 이날이 문제해결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첫 양자협의는 지난달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바 있다. 이번에도 최종문 외교부 유네스코 협력대표와 신미 준 일본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 겸 스포츠담당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일본 측은 군함도 등을 메이지시대 산업혁명의 증거물로 규정하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정부는 수만명의 한국인이 징용돼 강제노동을 했던 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지난달 15일 '등재 권고안'에서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것을 계기로 일본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일본 측이 등재를 추진하면서 1850년부터 1910년으로 시기를 한정했지만 ICOMOS가 '전체 역사'를 권고한 만큼 1940년대에 집중됐던 조선인 강제노동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오는 28일부터 7월8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정윤아기자 yoona1@

손 잡은 문형표 보건복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한때 날카롭게 대립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메르스 총력 대응을 위한 협력 합의사항을 발표한 후 나오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진원지’ 삼성서울병원… 법 처벌 가능할까

64명 중 17명 확진… “과실 입증 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환자가 하루새 14명이 추가되면서 7일 총 확진 환자수가 64명으로 늘어났다. 확진자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인 17명이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자 병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업무상 과실의 경우 법리적 검토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피해환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가능성을 높게 봤다.

노태부(제이앤유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삼성병원에 대한 ‘업무상 과실 치상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 “의사가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처벌한다면 그 대상은 누구인지 등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업무상 과실이 성립하기 힘들다”면서 “이번 메르스 사건은 정부의 시스템 문제이며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업무상 과실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노 변호사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치료 등을 이미 받은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액수의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병원 측의 과실이 입증될 경우 피해 환자들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기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24곳의 메르스 관련 병원 명단을 공개했다. 국무총리 대행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메르스는 모두 의료기관내에서 감염된 사례들로 지역사회에 전파되지 않고 있어 확실한 통제가 가능하다”며 “국민들께서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뒤늦게 메르스 병원 명단을 공개했지만 감염자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 삼성서울병원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거론된다. 이 병원에서 메르스 전파는 14번 환자다. 증상이 나타난 후 1500여명과 접촉했다고 서울시가 밝혀 논란이 된 35번 환자도 응급실에서 14번 환자와 마주친 삼성서울병원 의사다. 메르스 감염 환자가 무방비 노출됐지만 병원은 메르스 전파를 우려한 어떠한 방역 조치도 하지 않은 셈이다. 병원 내 메르스 증상 환자에 대한 초동 대처가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날 14번 환자와 접촉해 격리된 사람은 의료진 등 직원 218명과 환자 675명을 합쳐 89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자택 격리된 의료진과 환자들을 모두 합치면 격리 대상자는 100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서이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병무청 실수로 직장잃고 복무

“국가, 2145만원 보상해야”

6개월 간 억울하게 복무를 한 군 면제자가 보상을 받게 됐다. 병무청 소속 징병검사 의사의 실수로 신체등위 5급으로 정상적인 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1급으로 잘못된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입대로 아낄 수 있었던 생활비를 보상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예지희 부장판사)는 육군에 강제로 입대해 반년 간 복무한 A씨에게 국가가 2145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영아 때 좌측 대장절제 수술 등을 받았다. 이 수술은 징병검사 신체등위 5급(제2국민역) 사유여서 A씨는 현역은 물론 공익근무에서도 제외돼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으로 분류됐다. 이에 의사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징병검사 의사의 오판으로 현역입영 대상인 2급 판정을 받았다.

허리디스크까지 생긴 A씨는 다시 신체등위 변경 신청을 내고 대기업에 취업했다. 그러나 디스크로도 신체등위를 바꾸지 못하자 결국 입사 9개월 만에 퇴사하고 2011년 입대했다. A씨는 입대 후 허리가 아파 군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실은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해 입대해서는 안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군 생활 약 6개월 만에 의병 전역한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병검사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입대 전 받던 월급 약 300만원을 군 생활 기간에 대입한 170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가는 “A씨가 육군에서 복무한 기간의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입대하면서 사회에서 쓰던 의식주 비용 등을 아낀 셈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손해 보상금에서 빼달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잘못된 강제처분으로 A씨가 군 복무를 했고, 군 복무를 하면서 생계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의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군 생활 중 받은 월급 60만원은 보상금에서 공제하라고 판결했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로또복권 제653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5	6	26	27	38	39	1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980,958,670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40,873,278
3등	5개 숫자 일치	1,146,172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메르스 환자 경유한 병원에 걸린 ‘힘내자’ 현수막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병원을 공개한 7일 오전 경유 병원으로 명단에 오른 경기도 평택의 한 병원 건물에 ‘힘내자! 대한민국 평택 파이팅!!’이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병원 관계자는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 시민들을 위해 현수막을 걸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法 “과로 후 출근 독촉에 뇌출혈 사망은 산재”

업무량 평소의 50% 증가 상사가 집앞까지 찾아와 과로·스트레스 누적 인정

과로한 상태에서 회사의 출근 독촉 전화를 받고 출근준비를 하다 뇌출혈로 숨진 경우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사망 당시 26세)씨 유족이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사망했으니 산재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9년 6월 입사한 A씨는 회사에서 회계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는 평소에는 주 5일, 주당 40시간 정도 근무를 했지만 2012년 4월에는 월말정산 업무 등이 몰려 주 6일간 근무하고, 20시간을 초과근무하게 됐다. 토요일에도 밤 9시까지 10시간 30분을 근무하고 퇴근했지만, 월요일 오전 6시44분부터 출근 독촉전화를 받았다. 토요일에 A씨가 처리한 작업에 문제가 생겼으니 일찍 출근해 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였다.

그러나 A씨가 전화를 받고도 바로 일어나지 못하자 직장 상사가 30분 뒤 A씨의 집 앞까지 찾아와 두 차례 더 전화해 당장 내려오라고 독촉했다.

A씨는 출근준비를 서두르던 중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뇌출혈로 숨졌다. 1심은 산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A씨가 숨지기 전 1주일간 업무량이 평소보다 50%나 증가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돼 숨졌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발생 전 1주일 내내 야근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어했다”며 “과로한 상태에서 상사로부터 질책과 출근독촉을 받는 것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연미란기자

메르스 감염 속출… 삼성서울병원 굴욕

하루새 확진자 10명 추가·사망자도 1명 발생
VIP실 입원중인 이건희 회장 건강상태도 관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왼쪽)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모습. 5일 서울 일원동 삼성병원의 폐쇄된 응급실 출입구 앞으로 병원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추가로 확진된 메르스 환자 5명 중 41번은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는 4일 복지부가 확진 사실을 발표한 35번 의사 환자 이후 두 번째다. /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환자가 7일 14명 더 확인돼 64명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사망자는 5명, 격리자는 236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대병원보다 더 월등한 의료시설과 의료진으로 대한민국 1등 의료기관을 자처한 삼성서울병원(병원장 송재훈)에서만 10명의 환자가 새로 추가되어 17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1명이 지난 5일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부천에서 1차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도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감염이 시작됐다. 또 부산에서 1차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은 이 남성에게 전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서울에서 부천과 부산으로 확대되자 삼성서울병원을 통해 전국에 걸쳐 대규모 메르스 확산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부천에서 1차 확진 판정을 받은 36살 A씨는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60대 부친을 간병하다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메르스 1차 확진자도 부천의 이 남성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기도 성남의 메르스 환자도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인으로 전해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에 전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오전 11시 뒤늦게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해 24개 메르스 감염병원을 발표했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네티즌과 시민들은 삼성서울병원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병원이 소재한 서울 강남구에 사는 강아무개(35)씨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자 관리에 실패하고 거기다 환자가 숨진 사실을 숨긴 것은 지금처럼 메르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상한 시국에 상급 병원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빅5에 드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서울 시민의 불안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 병원 20층 VIP실에 입원 치료 중인 이건희 회장의 건강상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르스 사망자 5명 중 80대 1명, 70대가 2명, 60대와 50대 각 1명으로 이건희 회장은 74세로 50대 1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망자의 나이와 중증질환을 앓고 있던 상황이 비슷하다. 그만큼 메르스 감염에 취약한 연령대이고 한 때 병세가 악화돼 호흡기 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으로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 이어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이 부회장은 최근 '2015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는 등 공익재단 이사장으로 공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취임 직후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에 뚫리고 환자가 사망한 사실을 감추기까지 하는 등 병원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했다는 도덕적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메르스 검사결과 14명이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평택성모병원에서 감염됐고 나머지 10명의 추가 감염자는 모두 서울시내 대형대형병원(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지난달 27~29일 응급실에 내원했던 64번(75) 환자는 지난 5일 숨진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일 대전 E병원에서 숨진 36번(82) 환자에 이어 3차 이상의 감염에 의한 사망자가 됐다.

보건당국이 사망 사실을 이틀 뒤에야 공개하면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정보 독점 및 은폐' 논란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정부, 뒷북 대응에 이어 병원 명단 오류까지…

잘못된 정보로 혼란 빚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 병원 정정보도 안내

정부에서 2015. 6. 7 발표한 메르스 확진환자 병원 오보로 아래와 같이 정정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당초 발표		정정 발표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
365서울열린병원	하나로의원	365서울열린병원	하나로의원
윤창옥내과	평택굿모닝병원	윤창옥내과	평택굿모닝병원
평택푸른병원	평택365연합의원	평택푸른병원	평택365연합의원
평택박애의원	평택연세허브가정의학과	평택박애의원	평택연세허브가정의학과
성빈센트병원	동탄한림대성심병원	성빈센트병원	동탄한림대성심병원
메디홀스의원	부천성모병원	메디홀스의원	부천성모병원
군포시 가정의학과의원	오산한국병원	성동구 성모가정의학과의원	오산한국병원
대천계인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대천계인병원	천안단국대병원
아산서울병원	건양대병원	아산서울병원	건양대병원
대전대청병원	순창 최선영내과	대전대청병원	순창 최선영내과

정부가 7일 11시 발표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발생·경유 병원 명단 24곳 중 일부가 잘못돼 수정 발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6월2일과 4일 다녀간 병원 중 성모가정의학과의원의 소재지가 경기도 군포가 아닌 서울 성동구로 알려진 것이다.

군포시에서는 홈페이지 팝업창(사진)을 통해 성모가정의학과의원이라는 병원이 없고 서울시 성동구에 소재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이로인해 명단 공개 시 국민들의 해당 병원 기피로 인해 영업 타격이 예상돼 그간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던 보건당국이 뒷북 대응에 이어 잘못된 정보 공개로 애꿎은 병원이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한편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서울삼성병원에서의 메르스 유행은, 검사가 진행되면서 향후 계속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말을 넘기면서 정체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최치선기자

박원순 "메르스 확진 권한 이양받아"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메르스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충남, 대전 등 지자체 4곳에 대해 메르스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문형표 장관과 4곳 광역단체장들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요구했던 "메르스 확진 권한을 이양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와 메르스 위기 극복을 위해 공조해 나가겠다"며 특히 "이를 위해선 정부정책의 신뢰, 지자체와의 역할 분담, 시민과의 정보 공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삼성서울병원을 통한 4차 감염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여러 정보를 공유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최치선기자

메르스 확산에… 고개 드는 '고소·고발'

메르스가 확산된 사이 전방위적인 고소·고발이 고개를 들고 있다. 메르스 관련 정보 확산에 대해 정부는 엄정 대응을 천명하고 검찰과 경찰은 무차별적인 명예훼손 수사, 보수·이익단체들은 실리에 따라 수사의뢰 등의 입장을 밝히면서 각자 입장에서 법적 시비와 대응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메르스 확진자 발생 19일째를 맞은 7일, 검찰과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은 각각 10여건, 25여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법적 대응은 주로 병원이나 학원 등의 기관으로 메르스 환자가 다녀갔다는 식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산시킨 사람도 법적 대상이 됐다. 정부가 정보 공개에는 소극적인 반면 엄정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검경과 법무부 등이 이에 부응하면서 고소·고발 건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15명을 기록한 지난달 30일, 정부는 유언비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루 뒤 경찰은 "모니터링을 강화해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고, 법무부도 5일 "찌라시(정보지)를 사람들이 재미로 퍼뜨리는데 그중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 지금이 유포자 엄단의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방역에 사활을 걸어야 할 범정부당국이 유언비어와의 전쟁을 시작하며 '불순한 의도'를 언급한 것이다. 유언비어로 인한 병원 등 기관의 피해를 줄이고 국민 불안을 잠재우는 대신 정치적 수사에 나선다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가운데 일부 이익단체와 보수단체 등도 이해관계에 따라 법적 대응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미란기자 actor@

상명대 교내 환경미화원들에게 감사꽃다발 전달 상명대학교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5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캠퍼스 미래백년관 학생식당에서 교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점심식사를 같이 했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미화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총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행사다. 상명대 윤승완 총학생회장(왼쪽)은 교내의 환경미화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상명대 제공

메르스 직격탄… 백화점·남대문 손님 '뚝'

주말 연휴에도 도심 한산… 손님보다 직원이 많을 정도

"택시운전을 10여년 했는데 현충일(6월6일)에 국립서울현충원이 그렇게 한가한 건 처음이였어요. 보통은 차로 난리인데 인근이 하루 종일 한산했어요. 오늘(7일) 서울 명동·을지로·광화문 등 일대도 주말이란 사실을 까먹을 정도로 한산하네요."(택시기사 김현중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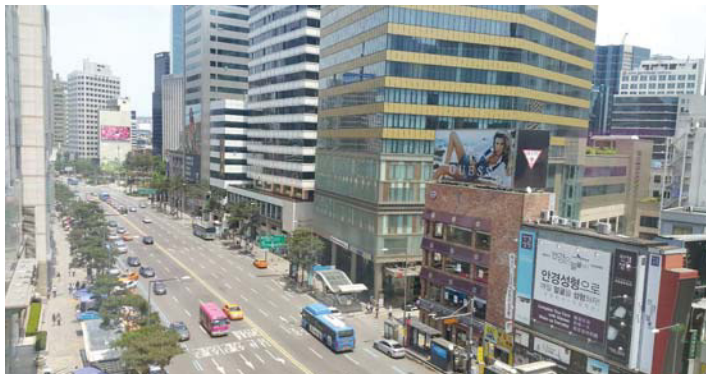
"살 게 있어서 백화점에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한산할 줄 몰랐어요. 평소 주말에는 백화점에서 커피 한잔 사먹으려고 해도 줄을 서고 한참을 기다려야했는데 오늘은 평화롭기까지 하네요."(주부 박은영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에 대한 불안감에 사람들이 인파가 모이는 곳을 피하면서 도심이 잔뜩 움츠러들었다.

7일 일요일 낮 12시. 평소엔 관광객과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로 미어터지던 서울 명동·을지로·남대문 일대는 메르스 직격탄을 맞아 한산한 모습이었다.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은 손님보다 근무하는 매장 직원이 많을 정도다. 층별로 고객 쉼터처럼 만들어 놓은 카페에는 한 테이블 정도만 손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 빈 테이블과 의자들이 덩그러니 놓여있어 주말 오후라는 사실을 무색케 했다.

백화점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보통은 테이블을 차지하기 위해 손님끼리 눈치 싸움을 벌이기까지 하는데 이번 주말은 여유롭게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손님을 볼 수 있는 곳은 9~11층의 면세점과 지하 1층 건강식품코너였다.

7일 오후 서울 명동 입구와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 앞 도로가 주말 오후인데도 한산한 모습이다.

면세점엔 마스크를 쓴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면세점 매장 한 관계자는 "메르스로 인해 주말 중국인 관광객의 매장 방문이 크게 줄었다고 보긴 힘들지만 마스크를 쓴 관광객은 확실히 늘어났다"고 말했다.

건강식품 매장 직원은 "메르스 여파로 홍삼을 찾는 손님이 늘고 있다"며 "면역력에 상대적으로 강한 순수 추출액을 중심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동과 남대문 시장 역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SPA(제조·유통 일괄형)브랜드 에잇세컨즈 명동매장 관계자는 "주말에는 외국인 관광객 외에 내국인도 많았는데 메르스 때문인지 손님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남대문 시장은 전체가 텅 빈 모습이었다. 의류 상점은 물론 잡화·이불·도자기 상점, 수입 상가 등 시장 어디를 가도 손님을 보기가 힘들었다. 시장 한 상인은 "30년간 장사를 해왔지만 이렇게 손님이 없던 적은 처음"이라며 "세월호 때 보다 더 힘들다"며 하소연했다.

메르스의 불안감은 연인들의 극장 데이트도 주춤하게 만들었다. 명동과 을지로 내에 있는 롯데시네마와 CGV에는 주말 최대 대목임에도 역시나 한산했다.

영화를 보러 온 한 커플은 "메르스 환자가 대부분 40~50대라고 하니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영화를 보러 나왔다"며 "인터넷으로 예약할 때는 자리가 없었는데 매표소에 와보니 자리가 많았다. 메르스 여파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은미·박상길·김성현기자 21cindiun@

KT 주요 상장계열사 KTCS 등 내부거래 급증

의존도 높아 사업구조 취약

KT의 상장 계열사 8곳 중 5곳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이 2013년 대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외부와의 사업영역 확대와 신규사업 진출 보다는 KT라는 든든한 배경을 등에 업고 KT그룹 관련 매출을 꾸준히 늘려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의 주요 상장 계열사 5곳의 주요 실적이 KT를 통해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TCS(정보 서비스)는 2013년 내부거래액이 2599억8500만원에서 지난해 4434억1071만원으로 급증해 전년 대비 70.55%(1834억2571만원)가 늘어났다. 작년 KT와의 내부거래액은 KTCS 매출의 74.55%를 차지했다. 사실상 KT가 대부분의 일감을 몰아준 셈이다. 2013년의 내부거래 비율 65.61% 보다도 8.94% 증가한 수치다. 이외에도 내부거래액이 증가한 KT 상장 계열사는 KTIS(유무선 상품 일반 및 전문 상담), KT뮤직, 나스미디어(디지털광고 집행 전문업체), KT스카이라이프다. KTIS는 2013년 내부거래액 2549억459만원에서 작년 3053억68만원으로 증가해 전년 대비 14% (393억9609만원) 늘어났다. 지난해 전체 매출의 67.7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KT뮤직의 경우 2013년 내부거래액 171억7053만원에서 작년 410억3157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두배(138.96%) 이상 급증했다. 작년 내부거래액 또한 KT뮤직 전체 매출의 절반(47.52%)가량을 차지했다.

/정문경기자 hm0108@

신세계, 메르스 공포 벗어날 듯 말 듯

1Q 실적 부진… 면세점 입찰 경쟁에 '사활'

신세계 주가가 신규 면세점 입찰 기대감과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 확산이란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신세계는 최근 면세점 입찰에 자신감을 내비치며 실적 악화 돌파구를 모색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메르스 확산에 따른 우려가 소비심리와 함께 투자심리까지 위축시키면서 신세계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장 마감 기준 신세계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28%(1만5500원) 내린 23만1500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전날보다 1500억원 가량이 줄어들었다.

신세계 주가는 지난 한 해 유통산업 포화와 매출 부진 등으로 고전해왔다. 올 들어서도 4월 중순까지 주당 16만원에서 18만원 사이 박스권에서 등락을 이어왔다.

신세계 주가가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은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 참여가 확실시되던 4월 14일부터다. 이때부터 신세계 주가는 5월 18일 종가기준 26만7000원으로 40.52%나 상승했다.

신세계 면세점 입찰 이슈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다름 아닌 메르스 사태다. 신세계 주가는 최초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부터 확진환자가 60명을 넘어선 현재까지 7.22% 뒷걸음질 쳤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하루에만 외국인 관광객 8800여명이 방한 예약을 취소했다.

대신 신세계는 면세점 입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세계가 백화점 산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면세점 사업에서 찾으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신세계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3722억876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4% 줄었다. 영업이익은 461억원으로 0.24% 오른데 그쳤다.

신세계는 오는 7월 중 열리는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서울시내 면세점 일반경쟁 부문에 도전한 7개 대기업과 '5분 프리젠테이션(PT)' 경쟁을 벌이게 된다.

신세계는 우선 본점 명품관(본관) 전체를 프리미엄 면세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더불어 '남대문과의 상생'이란 깃발까지 내걸었다. 면세점 사업권 심사 항목 중 '상생 기여' 배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남성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신세계는 전체적 펀더멘털(기초체력) 변화를 위해 시내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었다"며 "사업권 취득과 무관하게 면세점 관련사업은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김보배기자 bobae@

은행권 "차별화된 설계… 은퇴시장 잡아라"

1:1 전담관리 서비스 등 맞춤형 은퇴 솔루션 제공 전문인력 양성도 힘써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은행들이 '은퇴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은퇴시장'이 은행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 상품 투자한도가 현행 40%에서 70%로 늘어나는 등 퇴직연금 편입 상품이 확대됨에 따라 은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은행권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고객의 은퇴 준비를 돕기 위해 노후 설계 세미나와 특화 브랜드 출시, 귀농 체험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은퇴설계시스템 구축·전문인력 양성

신한은행은 고객별 운용현황을 모니터링해 리밸런싱 시기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신(新)퇴직연금시스템'을 8일 오픈한다.

이는 빅데이타를 분석해 가입자별 맞춤형보고서를 제공하는 자산관리컨설팅 시스템이다.

특히 DC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선 가입자별 거래지점을 전담 관리점으로 매칭하는 가입자 1:1 전담관리시스템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퇴직연금시스템 도입을 통해 고객수익율 제고는 물론 업그레이드 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퇴직연금을 비롯한 고객들의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은퇴관리 솔루션 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은행도 은퇴설계시스템 'IBK평생설계시스템'을 구축해 은퇴시장 개척에 나섰다.

'IBK평생설계시스템'은 개인별 맞춤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은 재무상황과 은퇴준비 현황 등을 토대로 '평생설계지수'를 산출, 은퇴 준비도를 진단받는다.

기업은행은 또 6월 중 IBK평생설계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해 모바일뱅킹인 ONE뱅크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 영업점에 은퇴상담 전문 인력인 'IBK평생설계플래너'를 배치했다. IBK평생설계플래너는 지점 내 은퇴금융을 총괄하고, IBK평생설계시스템을 활용해 은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퇴설계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는 것이다.

◆ 노후 위한 세미나·맞춤형 혜택 강화

NH농협은행 역시 은퇴설계 핵심인력인 'NH All100플래너'를 내놨다. 이번에 선발된 은퇴설계 핵심인력들은 전국 주요도시 거점점포에 배치돼 종합적인 은퇴·노후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농협은행은 전국 1195개 지점에서 퇴직연금을 활용한 '은퇴자금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은퇴자금컨설팅'은 고객의 생애소득과 지출을 분석해 컨설팅하며 노후자금 부족 예상 시 맞춤형 퇴직연금 상품을 제시하는 등 고객별 맞춤형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체험활동도 마련돼 있다.

현재 농협은행은 'NH행복설계 서비스'의 일환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와 그 가족을 초청해 귀농체험을 실시 중이다. 또 매분기마다 노후설계 정보 간행물인 '행복설계'도 발행하고 있다.

김주하 농협은행장은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고객 맞춤형 은퇴설계가 이뤄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노후 생활에 맞춘 세미나도 있다.

우리은행은 명동 우리사랑나눔센터에서 재테크 무료 세미나인 '우리지식나눔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당당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투자'라는 주제로 열린다.

세미나는 ▲노후 생활을 위한 수익성 부동산 투자법 ▲투자 유망 아파트 ▲저금리를 뛰어넘는 금융투자법 및 세테크 ▲건물 신축 초보자 똑똑한 건축주 만들기 등을 5회에 걸쳐 소개한다.

이는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으며 회차별로 4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참석을 원하는 고객은 사전에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휴면소액계좌 9100만개 거래중지"

금감원 '대포통장 전쟁' 선포

금융당국이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9100만개의 소액계좌는 거래가 중지된다.

또 지난 1년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두 차례 이상 등록된 8400여명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키로 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를 척결하고 기존 통장이 범죄자금의 이동경로인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거래를 중지하기로 했다.

이는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요구불 예금계좌 약 2억개 가운데 거래중지 대상에 해당하는 계좌는 9100만개에 달한다.

이들 계좌는 오는 1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별 순차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계좌 정상화를 원하는 고객은 은행 창구를 방문해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고객이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는 '간편 해지' 방안도 올 3분기 중에 추진키로 했다.

기존계좌의 사기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5만9260명 가운데 두 번 이상 걸린 8389명을 오는 9월 금융질서문란자에 등재할 방침이다.

금융질서문란자가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5년간 기록이 보존된다.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소명을 받은 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당국에 고발토록 결정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한 번이라도 걸리면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비대면거래도 제한된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취업준비생으로부터 취업을 미끼로 통장이나 공인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빼낸 뒤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백아란기자

"광복 70년 기념주화 어때요?" 한국은행은 오는 19일까지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의 각 지점·홈페이지에서 광복 70주년 기념주화를 예약 판매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업은행 '기업 핀테크 플랫폼' 출시

이달 중으로 플랫폼 기반의 '기업 핀테크' 서비스가 나온다.

7일 IBK기업은행은 기업용 IT솔루션과 은행의 전자금융 서비스가 결합할 수 있는 '기업 핀테크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시범운용 중인 '협동조합CMS'와 같은 형태다.

'협동조합CMS'는 기존 CMS(자금관리서비스)에 '조합원관리' IT솔루션을 가진 기업과 상호 협력해 협동조합 고객군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와 창업기업, 보험독립대리점 등 고객별 필요한 기술이 추가된 맞춤형 핀테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업은행 측은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달 출범하는 모바일 통합플랫폼과 더불어 기업 핀테크 플랫폼이 구축되면 개인과 기업용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게 된다"며 "하반기 기업 핀테크 플랫폼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진화된 지식산업센터…최첨단·특화설계 바람

업무성격 고려 휴게실·주차장 등 맞춤 설계 인기

지식산업센터의 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10년 4월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스마트형 공장으로 변신 중인 것.

199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한 당시 아파트형공장은 의류·인쇄 등 제조업을 위한 곳으로 지어졌다. 튼튼한 구조 하중설계와 넓은 화물데크가 특징이었다.

그러다 2000년 초반부터 벤처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로 성격이 변했다. 서울의 구로동, 가산동, 성수동 등에 주로 들어서다 판교나 분당 등에도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공동회의실이나 옥상정원 등 편의시설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다.

최근에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과 지식산업기반 설계의 장점을 모두 수용한 형태로 지어지고 있다.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할 경우 휴게공간이나 편의시설 부족이 단점으로 나타났고, 지식산업기반산업은 화물하역공간이나 주차공간 부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이 늘면서 특화설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근무환경을 고려한 설계에 계약자들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양한 특화설계를 도입한 지식산업센터들이 인기다.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요진건설산업이 시공하는 '요진 코아텍'은 인천 곳곳에 흩어져 있던 도금업체들을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에 모아놓은 지식산업센터다. 216실의 공장과 108실의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

요진코아텍에 적용된 드라이브인 시스템.

최신식 친환경 설비들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적용해 제품 상하차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1~8층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6m의 층고와 길이 27m의 설비공간을 확보하는 등 표면처리업을 위한 맞춤설계를 도입했다.

검단일반산업단지에 공급된 '검단지식산업센터 블루텍' 역시 5톤 화물차가 공장 안까지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전 층에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각 공장마다 원활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슬라이딩 도어'도 설치했다.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7블록에서 현대건설이 선보인 'H비즈니스 파크'는 넉넉한 동간거리로 개방감을 확보하고 4면 개방형 특화설계를 적용해 쾌적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단지 문정지구 중앙공원 방면으로는 탁 트인 조망까지 누릴 수 있다.

경기도 부천에서 분양 중인 '춘의 테크노타워'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층까지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컨테이너 차량의 하역작업이 용이한 화물데크도 설치했다.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고 수납공간을 만들기 위해 각 실별로 발코니도 설치할 계획이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32.8%" 지난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올라온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1만405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가 32.8%를 차지했다. 이는 정부와 서울시가 전·월세 거래량을 조사하기 시작한 20011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한양 '안양 한양수자인 에듀파크' 등 12개 단지 공급

| 주간분양 |

메르스 공포도 달아오른 분양시장의 열기를 꺾지 못하는 모양새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전국적으로 청약접수 12곳, 당첨자 발표 16곳, 당첨자 계약 20곳, 견본주택 개관 17곳 등의 일정이 계획돼 있다.

대우건설은 8일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C2-4·5·6블록 '위례 우남 푸르지오'를 1순위 공급한다. 전용면적(이하 동일) 83㎡, 총 620가구다. 서울지하철 8호선 우남역(2017년 예정)이 도보 거리다. 단지 주변으로 상업용지가 계획돼 있고, 초·중·고교 예정부지도 가깝다.

대림산업은 10일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에서 'e편한세상 영랑호'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74~142㎡, 전체 497가구 규모다. 이마트, 중앙시장, 속초의료원, 속초버스터미널, 속초공설운동장, 영랑호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중앙초, 설악중, 속초중·고, 속초여중·고와 인접했다.

한양은 11일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안양 한양수자인 에듀파크'의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전체 348가구, 59~84㎡로 구성된다. 수도권전철 1호선 안양역과 롯데백화점, 이마트, 박달도서관, 석수도서관, 안양천 수변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삼봉초, 박달초, 안양중·고가 있다.

대우건설은 12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에 공급하는 오피스텔 '성남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전체 1255실, 20~49㎡로 이뤄졌다. 서울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도보 5분 거리다.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의 도로망도 갖췄다. 이마트, 세이브존, 성남중앙병원, 중원구청, 성남종합운동장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 가능하다.

삼환종합건설은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에 짓는 '골든뷰 센트럴파크' 견본주택의 문을 연다. 아파트 84㎡, 1272가구와 오피스텔 21~48㎡, 120실로 구성된다. 부산지하철 부전역이 단지 바로 앞이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부전시장, 부산시민공원 등과 인접했다. 통학권 내 성지초(이전 예정), 향도중, 부산진중·고, 부산동고 등이 있다.

/박선옥기자

메르스에 분양시장도 노심초사

견본주택 방문자 급감 일부지역은 개장 연기

메르스 공포가 전 사회 휩쓸자 건설업계가 자칫 살아난 부동산 분양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지 '노심초사'다.

7일 메트로신문이 수도권에 현재 분양 중인 모델하우스를 취재한 결과 지난주보다 방문자들이 현저히 줄었다.

성남시 위례지구에 공급하는 A아파트의 경우 금요일 견본주택 방문자가 급격히 줄었다. 이 단지는 성남시 위례지구에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곳으로 수도권에서는 웃돈(프리미엄)이 4000만원까지 붙은 분양 과열단지로 각광을 받았다.

A아파트 분양 담당자는 "지난주까지 3만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방문객이 많았다. 특별공급이 시작되는 금요일부터는 홍보가 안돼 찾아오는 인원이 줄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는 다른 의견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만해도 견본주택 입장을 위해 방문자들이 줄을 길게 서고 임시주차장도 꽉찼지만 메르스여파가 이 단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4000만원 이상 웃돈이 붙은 이 단지가 이정도면 다른 단지에는 더 큰 타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수도권 B아파트도 예상보다는 적은 인원이 방문해 울상이다.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은 7년만에 들어서는 신규 단지로 인근에서 인기를 끌던 곳이다.

B아파트 분양 담당자는 "메르스 여파로 견본주택 개장을 미룰지도 고민했다"며 "생각보다는 많은 수요자가 찾아왔지만 주요 수요층인 신혼부부와 젊은 가족들의 경우 어린자녀와 같이 방문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5일 분양한 한 견본주택 내부에 비치된 손세정제.

이어 그는 "차라리 메르스 여파가 확산되기 전에 빠르게 분양을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탄과 인천 등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인천 가정지구 대성베르힐은 지난 4일로 예정했던 견본주택 개관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GS건설의 '부천 옥길 자이'도 오는 12일 견본주택 개관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 태전동 '태전 지웰'도 개장일정을 연기했다.

한 분양 담당자는 "메르스여파로 견본주택개관일정을 연기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고 그나마 개장한 곳도 방문자들에게 손 세정제와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인원이 찾아오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근들어 분양시장이 정부의 부동산활성화대책으로 살아날 기미가 보인 상황에서 메르스사태가 장기화되면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김형석기자 khs84041@

메르스 휴교령에 온라인교육·게임株 '반짝'

온라인 학습 증가 전망
'에듀박스' 등 최근 주가 ↑

외부활동 자제 추세에
게임주도 때이른 호황

메르스 확산 공포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인구가 늘면서 온라인 교육주와 게임주가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향후 메르스 확산 속도에 따라 휴교하는 학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가정에서의 온라인 학습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영환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003년 사스사태 당시 중국에서는 스포츠용품·의류·가구 등 오프라인활동을 동반한 종목은 평소보다 소비가 위축된 반면 실내활동과 관련된 도서류·위생용품 등의 소비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메르스 공포로 투자심리 약화가 우려되는 내수주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홈쇼핑·미디어·게임 등 실내활동과 관련된 분야 위주로 압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코스닥 온라인 영어교육업체 '이퓨처'는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하다가 오후 들어 급락해 4.85%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퓨쳐는 지난 3일과 4일에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디지털대성'은 지난 2일 9.34% 급등했다가 4일에는 7.28% 하락하는 급등락을 보였고, 5일에는 3.46% 올랐다. '에듀박스'도 지난 4일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은 2540원에 거래되며 3거래일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 호재와 쉬워진 수능 때문에 온라인 교육주들이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게임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모바일 게임업체 '게임빌'의 주가는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고, '컴투스'도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탔다.

게임관련주들은 국민들이 자택에 머무르는 시간에 비례해 상승한다. 여름 방학 보다는 겨울 방학이 게임사업의 호황기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게임주의 하반기 실적 전망 역시 긍정적이다. 올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게임업체들의 펀더멘털(기초여건) 개선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황승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올 상반기 신규게임 부재에 따른 부진한 실적으로 충분한 주가 조정을 거쳤다"면서 "하반기에는 신규게임 라인업에 기반한 실적 개선이 주가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컴투스의 경우 2분기 책정된 마케팅 비용이 6월에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집중되며 방문자 수(트래픽) 증가가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 마련된 학생 감염병 대책반에서 직원들이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을 하느라 분주하다. /연합뉴스

메르스에 맥 못 춘 국내 주식펀드

평균수익률 -1.43% 기록
배당주식 -1.84%로 최저

국내 주식형펀드가 메르스 여파로 한 주간 부진한 성적을 냈다.

7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이 지난 5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주식형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형 기준으로 0.23%의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중소형주식 펀드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다.

배당주식펀드의 수익률이 -1.84%로 가장 낮았고, K200 인덱스펀드와 일반주식펀드의 평가액도 지난주보다 각각 1.78%, 1.20% 떨어졌다.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 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펀드 1745개 펀드 가운데 110개만이 플러스 수익률을 냈다.

운수장비, 통신업의 부진으로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펀드들이 약세를 면치 못했다.

펀드별로 보면 중·소형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자 1(주식)종류C1' 펀드가 2.32% 상승해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 이어 'KB밸류포커스자(주식)클래스A', 'KB밸류포커스소득공제전환자(주식)C클래스'도 각각 2.14%, 2.13%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국내 채권펀드는 한 주간 평균 0.03% 상승했다.

소유형을 기준으로 보면 초단기채권 펀드가 0.05%로 수익률이 가장 우수했다. 이어 일반채권펀드도 0.04% 상승했고 중기채권펀드는 수익률이 -0.05%로 가장 저조했다.

해외주식펀드는 중국과 일본 증시의 강세 덕분에 평균 1.20%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중국 증시가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중국주식펀드가 3.64% 올라 가장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일본주식펀드도 엔저 지속에 힘입어 0.14% 올랐다.

/김민지기자

삼성-엘리엇 힘겨루기… 삼성물산 주가 급등

엘리엇 시세차익 노림수 지적… 추격매수 주의

삼성물산 주가가 삼성그룹과 엘리엇 매니지먼트 사이 지분다툼 기대감에 거침없이 상승했다. 향후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은 전일대비 9.5%(6600원) 오른 7만6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은 10.32% 급증해 이틀간 오른 상승률은 20.8%에 달한다. 엘리엇 매니지먼트 측의 공시 이후 벌어진 현상이다.

5일 삼성물산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33.75%로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밝힌 4일에 비해 0.67% 증가했다. 외국인 순매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3일에 비해서는 1.64% 증가한 수치다.

엘리엇 매니지먼트 측은 주주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분 증가나 외국인 규합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삼성물산 지분을 가진 외국인이 규합해 주식매수청구권을 1조5000억원 이상 행사할 경우 삼성의 합병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이 때문에 양측 간 지분에 대한 힘겨루기가 생긴다면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실제 외국인의 지분율 증가와 20.8%의 주가 상승률은 삼성과 엘리엇 사이 힘겨루기 과정에서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엇이 불공정 문제를 빌미로 삼아 시세 차익을 챙기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개미 투자자들이 현 상황에서 추격 매수에 나서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증권사의 지주회사 담당 연구원은 "합병 비율이 잘못됐다는 것은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보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의 지분 평가가치는 이틀만에 1457억원이나 불어났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투자기법인 공매도는 지난 5일 삼성물산에 대해 57만8171주(약 430억7000만원)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이후 최대치로 삼성물산의 주가향방에 대해 외국인 주주들의 시각이 현재의 주가 상승세와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4년 영국계 헤지펀드인 헤르메스도 삼성물산 주식 5%를 매집한 뒤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지분을 모두 팔아 치워 300억원대의 차익을 거둔 바 있는 만큼 개미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정경기자 jkljkl@

코넥스, 29일부터 예탁금 1억원으로

내달 27일부터 소액계좌 도입

앞으로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은 3분의 1로 낮아지며 예탁금에 관계없이 투자할 수 있는 소액 계좌가 도입된다.

7일 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기본예탁금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증권사가 투자자의 자산 관리를 중개하고 일임하는 '일임형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의 기본예탁금을 전액 면제키로 했다. 기본 예탁금은 현재 1억원이다.

이와 함께 3억원 미만이 예탁된 랩어카운트 계좌의 코넥스주식 투자한도 제한(예탁금의 30%)도 폐지된다.

아울러 내달 27일부터는 연간 3000만원까지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할 수 있는 코넥스 전용 소액투자자계좌도 도입키로 했다.

이는 모든 증권사를 포함해 1명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이정경기자

현대차, 수출·내수 안팎으로 '헛바퀴'

수입차 국내시장 잠식 가속 가격경쟁력 상실… 수출 뚝

현대자동차가 올해 들어 판매가 줄면서 좀처럼 가속 페달을 밟지 못하고 있다.

내수와 수출 실적이 동반 하락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도 줄어들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내수 5만4990대, 해외 33만4309대 등 총 38만9299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월 대비 내수는 8.2% 줄고, 해외는 6.1% 줄어 총 6.4% 감소한 수치다.

현대차의 올해 누적(1~5월) 판매는 내수 27만3277대, 해외 173만6132대 등 총 200만9409대다.

전년 동기 대비 내수는 4.6% 줄고, 해외는 3.4% 줄어 총 3.6% 감소한 규모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지난달 내수 4만10대, 해외 20만2044대 등 총 24만2054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내수는 10.4% 늘었지만, 수출이 7.0% 줄면서 총 4.6% 감소했다.

기아차는 올해 누계로 내수 19만7572대, 해외 106만7950대 등 총 126만5522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내수는 7.8% 늘고 수출은 4.5% 줄어 총 2.8% 감소한 수치다.

이 같은 판매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에 반영됐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1~3월) 매출액 20조9427억원, 영업이익 1조5880억원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3% 줄고 영업이익은 18.1% 감소한 규모다.

기아차는 올 1분기 매출 11조1776억원, 영업이익 5116억원을 올렸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6.3% 줄고, 영업이익은 30.5% 감소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현대·기아차의 부진 원인으로 내수에서의 수입차 공세와 해외 시장에서의 엔저와 유로화 약세, 신흥시장 화폐가치 급락 등을 꼽고 있다.

이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긴장감을 갖고 위기를 돌파하자"고 강조 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만 않은 상황이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퀀트 애널리스트는 "현대차의 판매량 부진 원인으로 조업일수 감소와 신차모멘텀 부재가 꼽힌다"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원/엔 환율의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상실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익모멘텀 측면에서 현재 현대차의 매력도는 낮게 평가된다. 환율과 경기 등 매크로 변수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2분기에 뚜렷한 성장은 어려울 전망이고 3분기 턴어라운드 여부도 불투명하다. 연간기준 역성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4일 용인 홍천중학교에서 열린 '필리핀 아이따족 기부물품 전달식'에서 뜨개질 동아리 학생들이 본인들이 직접 짠 뜨개 학용품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 제공

아시아나, 홍천중 – 필리핀 마을 '오작교' 나섰다

뜨개 동아리 사회공헌 지원

아사아나항공은 경기도 용인 홍천중학교 학생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아시아나는 홍천중 뜨개질 동아리를 지난 4일 방문해 학생들이 뜨개질로 뜬 필통 29개와 학용품·의류 등 200여점의 기부물품을 전달받았다.

사측은 이달 말 자매결연 마을인 필리핀 딸락주 카파스시 필리안 마을 아이따족에 기부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시아나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지난 3월 만들어진 교내 신생동아리인 '뜨개질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 이준기 학생(14)의 주도로 이뤄졌다.

이 학생은 평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사회공헌 참여 방법을 모색하던 중 아시아나의 '기내 모자뜨기' 서비스 소식을 접하고 아시아나에 연락했다.

연락을 받은 아시아나는 뜨개질 용품과 학생 기부 물품 운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학생은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필리핀 친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사회공헌을 계기로 교내에서 나눔문화가 확산돼 기부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측은 "학생들의 의지와 아시아나가 함께해 이뤄낸 만큼 의미가 더욱 값지고,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용기기자 yonggi@

"항공기 정비사 어디 없소" 에어부산, 30명 공개채용

에어부산(대표 한태근)이 2016년 신규 취항·증편에 대비해 신규 정비인력을 채용한다.

공개채용은 8~15일이다.

선발 인원은 총 30명 내외다.

지원 자격은 경력직의 경우 항공정비사 면장 보유와 항공기 정비 관련 경력 7년 이상인 자(A320/B737 한정 보유자 우대)다.

신입직의 경우 초대졸 이상으로 항공기술 관련 교육 과정 이수자여야 한다.

경력·신입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군필 또는 면제자여야 한다.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활용 능력 우수자는 전형 시 우대한다.

원서 접수·자세한 내용은 에어부산 채용사이트(recruit.airbusan.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필기자

하이브리드 사면 유기농 제품 반값

기아차 6월 프로모션

기아자동차는 이달 하이브리드차량(HEV) 구매 고객에 유기농 전문 업체 이용금액 50% 할인, 반값 할부 등 판촉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기아차는 '친환경 밥상' 이벤트로 K5 HEV, K7 HEV를 구입한 고객이 유기농 업체 매장을 이용한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차량 출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초록마을이나 한살림, 올가 매장에서 현대카드로 결제하면 30만원 한도에서 이용금액의 50%를 준다. 온라인 쇼핑몰은 제외된다.

'더블 반값' 프로그램은 ▲2.9%의 금리 및 차량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반값 할부' ▲자동차세, 차량 보험료, 정비, 세차, 하이패스 결제금액의 50%를 지원하는 '반값 패키지'로 구성됐다.

HEV 구매 고객이 더블 반값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경우 일반적인 할부와 비교해 월납입금을 ▲K5 HEV 고객은 약 69만원에서 약 36만원으로 ▲K7 HEV 고객은 약 87만원에서 약 44만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정용기기자

신차 기대감에… 경차·준중형 판매↓

아반떼·K5·스파크 출시 임박

아반떼와 K5, 스파크 등 신차를 기다리는 대기수요로 경차와 준중형차 판매가 줄어들었다.

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 올해 5월까지 경차의 판매 비중은 13.7%, 준중형차는 13.6%로 집계됐다.

경차 판매비중이 13%대로 떨어진 것은 2010년 이후 5년만이다. 준중형차는 2002년 이후 13년만이다.

지난해만 해도 경차는 15.4%, 준중형차는 16.1%를 차지했다.

이처럼 경차와 준중형차의 판매비중이 크게 떨어진 이유는 신차를 기다리는 고객들이 구매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통상 5~7년 주기로 신차 출시가 다가오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미루기 때문에 해당 차종뿐만 아니라 경쟁 차종을 포함한 차급 전체의 판매가 줄어들기 쉽다.

한국지엠과 현대자동차는 하반기에 각각 경차 스파크와 준중형차 아반떼 신차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아자동차는 이달 중순부터 신형 K5의 사전계약을 받고 7월 중 출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아반떼와 스파크, 중형차 K5 등 신차가 잇따라 출시되면 승용차의 판매비중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필기자

삼성전자, 콘텐츠 마케팅 팔 걷었다

美 영화 제작사와 파트너십 PPL 등 마케팅 협력 강화

특허보유 '루프페이' 인수 삼성페이 경쟁력 강화 노려

삼성전자가 콘텐츠의 힘을 통해 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S5가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후, 콘텐츠를 앞세워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영화 '어벤져스 :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제작사 마블사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한 삼성전자는 영화 속에 자사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 등을 등장시켰다. 영화 개봉 당시 시사회장에 갤럭시S6 엣지와 영화 속에 등장한 갤럭시 콘셉트 제품이 전시됐다. 또한 지난달 국내에는 갤럭시S6 엣지 아이언맨 에디션이 1000대 한정으로 판매되며 화제를 모았다.

지난 4월 17일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내한 행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의 삼성전자 갤럭시 전시 부스에서 배우 크리스 에반스가 '갤럭시 S6'로 셀피를 촬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이어 지난 1일 삼성전자는 미국의 영화 제작사 유니버설 픽쳐스와도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후 오는 11일 개봉할 '쥬라기월드'의 메이킹 필름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삼성전자의 브랜드와 UHD 커브드 TV, 스마트폰, 태브릿 PC 등 제품이 등장했다.

삼성전자는 매장에서 '쥬라기월드' 관련 콘텐츠를 틀어주거나 제품 PPL 등을 진행하는 등 마케팅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케팅 측면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기기 내부 속의 콘텐츠를 통해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페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마그네틱 보안전송(MST) 관련 특허 기술을 보유한 루프페이를 인수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근거리 무선 통신(NFC)과 MST 방식을 통해 모바일 결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일 열린 '삼성 투자자 포럼 2015'에서 이인종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부사장은 삼성페이와 갤럭시 시리즈의 시너지에 대해서 "삼성페이가 갤럭시를 도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콘텐츠가 디바이스 판매를 견인할 수 있다는 삼성전자의 기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오는 9월 삼성페이는 한국와 미국에서 우선으로 출시되고 유럽, 호주, 남미 등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워너브라더스, 20세기폭스, 디즈니, 소니 등 TV 제조업체, 할리우드 영화사, 콘텐츠 배급업체, 영상기술업체 등과 UHD 얼라이언스에 참여하고 있다.

UHD 얼라이언스는 콘텐츠 확보를 통해 UHD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합체다.

과거 3D TV가 콘텐츠 확보에 실패하면서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지만 삼성전자는 UHD 얼라이언스의 창립멤버로서 글로벌 업체들과 UHD 콘텐츠를 확보해 TV 시장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임은정기자 eunj71@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삼성, 특허 3만8000건 푼다

대구·경북 벤처 육성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서 개방

삼성은 지역 벤처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대구·경북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특허를 중소·벤처기업과 개인 창업가(이하 중소기업)에게 개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방 대상 등록특허는 모바일기기, 디스플레이, 통신, 반도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3만8000건에 달한다. 이 중 3400건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또 삼성은 중소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사내 전문인력을 대구·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해, 개방특허 중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특허를 찾아 제공하는 '매칭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특허전문인력이 중소기업을 방문해 신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제품 개발시 문제가 되는 기술을 상담해 적합한 개방 특허를 제안할 예정이다.

'매칭 서비스'는 대구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하는 12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 사내 특허전문인력과 외부 특허전문가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출원부터 활용까지 제반 사항들에 대한 '특허 멘토링'도 실시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특허권이 아직 등록되지 않은 공개특허도 향후 등록이 되면 해당 특허를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삼성과 대구·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이 개방 특허를 활용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와 특허청과도 협력한다.

김선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이번 삼성의 특허 공개는 단순한 보유특허 공개를 넘어 '매칭 서비스'를 통해 지적재산권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삼성은 8일부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ccei.creativekorea.or.kr/daegu) 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ccei.creativekorea.or.kr/gyeongbuk)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 제공 신청 접수를 받는다.

한편 삼성전자는 유상으로 개방된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로 인한 수입의 일정 부분을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한진기자 hjc@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경

SKTvs 반SKT '통신 요금 인가제' 공방 마침표 찍나

미래부 내일 공청회 열어 이달 중 폐지 로드맵 마련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방침에 대한 이동통신업체 간 이해가 엇갈리는 와중에 정부는 다음주 중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추후에 적용할 예정이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9일 공청회를 열고 제4 이동통신사 신규 허용,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알뜰폰 활성화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 중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 점유율 1위인 통신사에 대해 요금 인상이나 새 요금제 출시, 요금 구조 변경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후발 사업자 보호를 위해 1991년 도입됐다.

정부는 인가제 폐지에 보태 신규 사업자 선정 등 정책 패키지를 한꺼번에 실행함으로써 통신시장에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조치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제4의 사업자와 알뜰폰 등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동통신 시장의 구도를 크게 흔들어 3사가 경쟁하는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게임의 룰을 바꾸겠다는 얘기다.

이런 와중에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각자의 셈범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요금인가제에 발목이 묶여 있던 SK텔레콤은 내심 인가제 폐지 방침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요금인가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긴 했어도 폐지되면 족쇄를 하나 벗어던지게 되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대해 회사 입장에서도 궁금해하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상 2~3개월씩 걸리는 심의 절차의 물리적 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SK텔레콤이 지금보다 빠르게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며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의 후발주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좀 더 입장이 뚜렷하다. 인가제가 폐지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KT나 LG로서는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유·무선 결합 상품을 내놓아 무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유선 시장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이달 안으로 인가제 폐지의 로드맵과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했다. /정문경기자 hm0108@

LG전자 '멘토·멘티 결연' 이공계 우수인재 육성

LG전자가 이공계 학생들과의 스킨십을 지속 강화하며 우수 인재를 육성한다.

LG전자는 6일 서초 R&D 캠퍼스에서 민경오 수석연구위원(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LG 드림 멘토링 3기'의 '멘토(Mentor·선배)-멘티(Mentee·후배) 결연식'을 개최했다.

'LG 드림 멘토링'은 LG전자의 최고 기술 전문가들이 멘토가돼 이공계 석·박사 인재들과 1대1 결연을 맺고 지도·조언을 제공하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LG전자가 6일 서초 R&D 캠퍼스에서 민경오 수석연구위원(첫째줄 왼쪽 일곱 번째)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LG 드림 멘토링3기'의 '멘토-멘티 결연식'을 개최했다. /LG전자 제공

LG전자는 학생들의 희망·관심 연구분야 및 성장 비전 등을 세밀히 고려해 최적의 멘토를 선정한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전기, 전자, 통신, 소프트웨어 등이다.

3기 멘티로 선정된 총 33명의 학생들은 '멘토·멘티 결연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6개월 간 활동한다.

이 기간 동안 멘토는 수시로 진로상담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연구소 방문 등 연구개발 현장체험의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조한진기자

CHAPTER 1.

낭만여행

〈미드나잇 인 파리〉 [6/4 ~ 6/10]
〈비포 미드나잇〉
〈사랑을 카피하다〉

CHAPTER 2.

예술과 인생

〈마지막 4중주〉 [6/11 ~ 6/17]
〈그레이트 뷰티〉
〈리스본행 야간열차〉

CHAPTER 3.

사랑의 속성

〈아무르〉 [6/18 ~ 6/24]
〈우리도 사랑일까〉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CHAPTER 4.

나를 찾아서

〈와일드〉 [6/25 ~ 7/1]
〈프란시스 하〉
〈꾸뻬씨의 행복여행〉

CHAPTER 5.

가족의 의미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7/2 ~ 7/8]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자전거 탄 소년〉

CHAPTER 6.

영혼을 울리는 음악

〈비긴 어게인〉 [7/9 ~ 7/15]
〈인사이드 르윈〉
〈위플래쉬〉

주최 • 씨네큐브 · 티캐스트 cinecube tcast 후원 • 흥국생명보험(주) 예술영화관 씨네큐브는 문화콘텐츠의 선두주자 티캐스트가 운영하고 흥국생명이 지원합니다. www.icinecube.com www.facebook.com twitter.com/iCinecube
협력 • 그린나래미디어(주) | 더블앤조이 픽처스 | (주)유제엔터테인먼트 | 미디어소프트 | (주)블루미지 |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 영화사 진진 |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 찬란 | 판씨네마(주) | (주)팝엔터테인먼트 | CGV아트하우스

SK, 해외인재 확보… 글로벌 경쟁력 UP

임형규 SK수펙스추구협의회 ICT 기술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 열린 '2015 글로벌 포럼'에 참석한 우수인재들을 상대로 SK그룹의 경영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K제공

'2015 SK 글로벌 포럼' 우수인재 140여명 초청

SK그룹이 글로벌 인재와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미국 현지에서 '2015 SK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SK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와 미시간, 보스턴 등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에너지화학 분야 우수 인력을 초청해 그룹의 비즈니스 현황을 설명하고, 관련 산업과 연계된 미래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2012년부터 시작한 글로벌 포럼은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이번 포럼에는 임형규 SK수펙스추구협의회 ICT 기술·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부회장)과 이호수 기술·성장특별위원회 기술전략담당(사장), 박정호 SK C&C 사장과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SK케미칼 등 ICT와 에너지·화학 관계사 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또 현지 유학생과 기업연구소 재직자 140여명의 우수인재가 포럼에 초청됐다.

SK는 포럼을 통해 신기술과 첨단산업 동향을 접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또 참석자들에게 그룹의 주력 사업 현황과 미래전략을 소개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세계시장 동향을 토론하는 '포럼'의 성격과 그룹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네트워킹의 장(場)이 '글로벌 포럼'이다.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된 ICT포럼에서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O2O(Online to Offline) 상거래 ▲반도체 등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SK C&C는 스마트 팩토리, 융복합 물리보안, 클라우드 분야의 사업계획을 소개하면서 글로벌 ICT기업으로 더 크게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에너지·화학 분야 포럼은 미시간과 보스톤에서 진행됐다. 특수화합물(Specialty Chemical), 복합소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연구개발(R&D) 추세에 관한 심도 깊은 대화가 오고 갔다. 포럼 참석자들이 SK의 핵심·첨단 기술과 결합한 융복합형 사업 전망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열띤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임 부회장은 "핵심 기술과 우수 인재를 확보한 기술적 뿌리가 튼튼한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해외 인재들이 국내 기업에서 신성장 동력원을 발굴하는 활동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SK 인재육성위원회 관계자는 "글로벌 포럼은 해외 우수인재와 그룹의 경영철학, 핵심 산업에 대한 통찰력, 성장 비전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면서 "SK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원을 함께 모색할 동반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영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임금 인상분 20% 협력사 지원"

SK하이닉스 '임금 공유 모델' 첫 시도

SK하이닉스가 임금인상 일정액을 협력사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상생협력 임금공유 프로그램'을 시도한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노사간의 2015년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임금 인상분의 20%를 협력사 직원들의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환경 개선에 지원하는 상생협력 임금공유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직원들이 임금 인상분의 10%를 내면, 회사가 같은 10%를 추가로 내는 방식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들이 성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는 있었으나, 임금인상의 일정액을 협력사 구성원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는 처음이다. 다른 기업들의 임금 협상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이날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임금공유 ▲노사협력 임금체계 개편위원회 설치 및 ▲하이닉스와 지역경제 상생을 도모하는 '도시·농촌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의 3대 상생 방안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상 타결방안을 발표했다.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은 "노사간의 이번 결정은 타이밍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업계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모델까지 만들어 낸 의미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사는 임금협상에서 합의한 임금인상 재원 3.1% 중 10%인 0.3% 포인트를 내 놓고, 이와 같은 규모인 0.3%를 회사가 매칭그랜트로 추가로 내놔 총 0.6% 포인트 만큼의 비용을 협력사 직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 구성원들은 실제로 2.8%의 임금인상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이천과 청주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약 4000여명의 협력사 직원들의 임금인상,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 및 안전·보건 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로 사용되게 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SK그룹 편입 이후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의 '상생협력을 통한 행복경영 실천'을 위한 기업문화를 노사관계 측면에서 적극 받아들여 이와 같은 발전적 임단협이 타결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사는 지난해 도입한 정년연장·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시행안을 마련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위원회를 만들어 하반기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또 농협과 연계해 직원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사도록 함으로써 농가에 연 100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한진기자

SKT '기가 와이파이' 신기술 개발…속도 최대 3배↑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기가 와이파이'의 속도를 대폭 개선할 차세대 네트워크 신기술 'MU-MIMO'를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새롭게 개발된 MU-MIMO는 기존 기가 와이파이의 속도를 이론상 최대 3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신기술이다. MU-MIMO의 핵심은 기가 와이파이 LTE망에서의 기지국 개념인 AP에서 다수의 사용자에게 동시에 데이터를 보내 사용자 편의 제고는 물론 기가 와이파이 망의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다수의 사용자에게 동시에 데이터를 보내면 기존 기가 와이파이의 데이터 전송 방식인 'SU(Single User)-MIMO'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할 경우 속도가 느려지는 점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분당사옥 내에 MU-MIMO 기술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기술 개발을 진행해 왔다. 이번 성능 확인은 지난해 말 개발한 신형 와이파이 장비 시제품을 활용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와 SK텔레콤이 함께 개발 중인 신형 와이파이 장비는 기존의 1.3Gbps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최대 1.7Gbps의 속도를 지원한다.

MU-MIMO 상용화 시 1.3Gbps를 3명에게 433Mbps씩 나눠서 보내거나, 2명에게 866Mbps와 433Mbps로 나눠서 보내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가능해 효율적인 기가 와이파이 망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SK텔레콤 측은 설명했다.

/정문경기자 hm0108@

LGU+ "DDP서 IoT 미래기술 선보인다"

이달부터 구축 착수

김선태 LG유플러스 SD 본부장(오른쪽)과 서울디자인재단 이근 대표이사(왼쪽)가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DDP에 적용할 LG유플러스 비콘 기술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LG유플러스와 서울 디자인 재단이 세계가 벤치마킹 할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을 구현한다.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IoT 선도 기술력과 All-I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 3차원 비정형 건물인 DDP에 IoT 미래 기술을 6월부터 구축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연간 1000만명 국내·외 방문객을 눈앞에 두고 있는 DDP에 IoT 솔루션을 도입해 ▲비콘기반의 고객 서비스 ▲무선 센서기반의 관제 시스템 ▲비콘 및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지역 상권 확대에 나선다. 비콘은 저전력 블루투스를 이용해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기존 무선 통신인 NFC와 달리 근접하지 않아도 정보수신이 가능하며 위치확인장치(GPS)로는 불가능했던 실내에서도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한 IoT 기술이다.

LG유플러스는 축구장 약 3배 크기의 DDP에서 고객이 쉽게 전시 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비콘의 위치 정보를 이용해 고객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실제 실내 사진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쉽게 전시 공간 및 원하는 목적지를 찾을 수 있는 '스마트 3D 도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형태로 최초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DDP에 방문한 고객이 도보 내비게이션을 보며 이동 중 고객의 위치에 따라 꼭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이 가능해져 DDP 이용편의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초대형 건축물인 DDP를 위한 무선 센서 기반의 관제 시스템을 전격 도입한다. DDP 곳곳에 작년 '무선 센서 인프라'를 구축해 이 정보를 클라우드 정보로 변환해 DDP를 빈틈없이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무선 센서'는 유선 센서와 달리, 설치비용이 적고 관리가 용이해 세심한 측정과 관리가 가능하다.

/정문경기자

르포 – 남대문·명동 메르스 직격탄

주말임에도 텅 빈 대한민국 대표 재래시장 '남대문시장'. 메르스 사태로 인해 남대문시장을 찾는 손님이 끊겼다. 상인들의 한숨만이 거리를 채우고 있다.

주말 명동 거리는 인파가 뜸한 모습이었다. 매장은 손님이 아예 없는 곳이 많았다. 거리엔 10명 중 3~4명꼴로 마스크를 착용해 메르스 불안감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텅빈 남대문시장, 역대 최악

손님 발길 뚝… 상인들 한숨만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다"

"내가 31년간 장사를 해왔는데 1983년 아웅산 사건이후 이렇게 손님이 없던 적은 처음이야. 세월호 때 보다 더 심해"

서울 중구 대한민국 대표 재래시장인 남대문 시장. 기자가 7일 점심께 찾은 남대문 시장은 이렇게 사람이 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산했다. 시장 곳곳의 호객꾼들도 텅 빈 거리에 힘이 안 나는지 가끔씩 박수 한번 치는 게 전부였다.

세월호 사태가 조금 회복세를 보이나 싶던 남대문 시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공포로 직격탄을 맞았다.

특정한 구역없이 시장은 전체가 텅 빈 모습이었다. 의류 상점은 물론 잡화·이불·도자기 상점, 수입상가 등 어디를 가도 손님은 보기 힘들었다. 골목에는 부채질을 하며 앉아있는 상인들만 가끔 눈에 띄었다. 힘없이 부채질을 하던 한 상인은 "이런 적은 처음이다. 너무 없다 진짜"라며 한 숨을 내쉬었다.

31년째 남대문 시장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한 상인은 "세월호 사건 때도 이 정도는 아니였다"며 "나흘 전부터 손님이 급격히 줄기 시작해서 지금은 보다시피 사람 한명 안 지나다닌다"고 하소연했다.

메르스 사태 이전 기자가 남대문시장을 방문했을 때 시장 상인들은 장사가 잘 안 되는 이유로 '세월호 사태'와 바로 옆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을 꼽았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메르스 사태'를 꼽고 있었다. 상인들 10명에게 장사가 안되는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은 한결같았다. "메르스가 지금까지 중 가장 큰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한 의류 상인은 "일전 사스(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태 때는 정부가 빠른 대처를 해서 재래시장 쪽에는 전혀 피해가 없었지만 지금 정부는 너무 대처가 늦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손주가 태어났지만 딸이 메르스 사태가 끝나면 보러 오라고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수입상가 쪽은 아예 문을 닫은 곳도 많았다. 한 수입상가 상인은 "주말에 손님이 가장 많이 오는데 토요일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일요일에는 아예 나오지 않는 상인들이 많아졌다"며 "우리도 사람이다보니 장사하러 나오기 무서워서 나오기 싫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minus@metroseoul.co.kr

요우커 메카 명동거리 '스산'

매장 손님 손에 꼽을정도 외국인 이탈현상 가속화

7일 점심께 찾은 명동 거리는 관광객들로 붐비던 평소와 달리 한산한 모습이었다.

중국인 관광객(요우커)과 국내 소비자로 북적이던 매장 안은 한산하다 못해 스산한 느낌까지 들었다.

거리엔 10명 중 3~4명꼴로 마스크를 착용해 메르스 불안감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장품 매장 직원들이 거리로 나와 샘플이나 팩을 나눠주기 위해 목청을 높이고 '50% 할인', '1+1' 등이 적힌 팻말로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소비자를 불러세웠지만 실제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화장품 브랜드 잇츠 스킨 매장 직원은 "주말에는 보통 오후 6시나 돼야 손님들이 몰리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최근 메르스 여파로 손님이 많이 줄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의류 브랜드인 에잇세컨즈 매장 직원도 "최근 메르스 여파로 손님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방문하는 손님들은 메르스 불안 여파 때문인지 마스크를 착용한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거리 매장뿐만 아니라 실내 건물안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명동 CGV영화관 8층 매표소에서는 표를 구매하는 관람객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 곳에서 만난 한 커플은 "인터넷으로 예약할 때는 자리가 없었는데, 매표소에 와보니 자리가 많았다"며 "메르스 여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거리가 한산한 가운데 유독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있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구매할 수 있는 다이소 매장이었다. 다이소 매장 직원은 "메르스가 시작된 직후부터 마스크와 핸드 워시를 구매하는 손님이 몰리고 있다"면서 "마스크는 모두 동나 재고가 아예 없는 상황이고 핸드 워시는 소량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메르스 여파로 한국 여행을 포기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7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한국 여행을 포기한 외국인은 2만600명으로 전날의 1만1800명보다 74.6% 늘어났다. 증가폭은 지난 3일 71%보다 3.6% 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정부, 시내면세점 입찰에 재벌 특혜 주나

홍종학 의원 "매출편차 9000배에도 대·중기에 동일규제"

지난 1일 마감한 정부의 시내면세점(서울 3곳, 제주 1곳) 입찰이 재벌 대기업들의 사업 확장기회로 변질되며 특혜를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7일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관세청이 2012년 관세법 개정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상생 협력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지만 재벌대기업의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의 매장 규모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대기업의 면세점 독과점 구조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면세점 사업비중을 50%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중소·중견기업과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규제기준을 면적수(재벌대기업 대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면적수 비율을 75.2% 대 24.8%)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비율은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김성현기자 minus@

공정위, 인터넷 면세점 거짓광고 적발

10개 사업자에 과태료 3300만원 부과

면세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할인 혜택이 자사에서만 가능한 것처럼 꾸며 과장 광고를 하는 등 부당하게 영업해 온 온라인 면세점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10개 인터넷면세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원이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는 대한항공스카이숍, 동화·롯데·부산롯데·신라·신세계·워커힐 인터넷면세점,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 면세점, 제주관광공사 온라인면세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면세점은 '소비자는 청약철회등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에도 해당 기간 내 청약철회등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화면세점,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신세계조선호텔, 에스케이네트웍스, 제주관광공사 등 6개사는 홈페이지에 "면세품은 교환 및 환불 불가"라는 식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문구를 적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염지은기자 senajy7@

롯데마트 헤어살롱 대전 7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이 샴푸와 염색약 등 200여 품목의 헤어용품을 정상가 대비 50% 할인하는 헤어 살롱 대전을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하리, 소주시장 살리나

저도주, 소주 매출신장 주도
롯데마트, 1~5월 매출 분석

/롯데주류 제공

알코올도수 14도의 롯데주류 '처음처럼 순하리 유자'를 대표로 한 저도주가 전체 소주 매출 신장을 주도하고 있다.

7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1~5월 소주 매출은 2012년 7.1%, 2013년 2.3%, 2014년 6.4%으로 매년 감소추세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2.8% 증가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같은 기간 제품별 순위에서 지난해까지는 5위 이내에 20도 이상의 소주가 최소 1개 이상 차지했지만 올해는 진로참이슬(17.8%), 무학 좋은데이(16.9%), 롯데처음처럼(17.5%) 등의 저도주가 순위권 안에 들었다.

회사측은 달라진 음주 문화와 함께 여성 음주가 늘어남에 따라 도수가 낮고 목넘김이 깔끔한 저도주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전체적인 소주 매출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 3월 출시된 롯데주류 '처음처럼 순하리 유자'는 롯데마트 4~5월 매출 분석에서 5위에 이름을 올렸다.

경남과 부산시장 공략을 위해 선보인 '처음처럼 순하리 유자'는 14도의 낮은 도수에 천연 과실원액과 레몬글라스 등 허브 엑기스를 첨가해 과일향과 새콤달콤한 맛으로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 지난달 전국적을 판매망을 늘리며 과일소주 열풍을 이끌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저도주의 인기가 소주 전체 시장을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신장시켰다"며 "소주 트렌드는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식어버린 라면시장… 대응책 분주

소비심리 위축 대체식 증가
신제품 출시 등 소비자 공략

불황에 강하던 라면이 소비 심리 위축에 가정 간편식 수요 증가 등으로 매출이 갈수록 줄며 주요 라면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새로운 맛을 찾기 위한 치열한 노력과 함께 전략 제품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수익성 개선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라면시장 규모는 2013년 2조100억원에서 지난해 1조9700억원을 기록했다. 2010년 1조9000억원대에서 2013년 최초로 2조원대를 돌파하는 등 성장을 거듭한 것과 비교하면 쪼그라들었다.

업계에선 최근 라면시장의 하락세 배경에 대해 "불황으로 소비경제가 좋지 못했다"며 "대체 편의식의 증가와 대형마트, 강제 휴무로 인한 타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라면 업체들은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킬 신제품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농심은 올해 1월 일반 라면보다 2배 굵은 '우육탕면'을 출시한 데 이어 지난달엔 3㎜의 면발을 사용한 프리미엄 짜장라면 '짜왕'을 선보였다. 지난달엔 불고기와 피자를 각각 라면과 접목시킨 '불고기비빔면과' 피자비빔면'도 내놓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제품 자체의 특성을 면발로 차별화했다"며 "신제품을 다수 출시하며 시장점유율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오뚜기는 지난해와 같이 올해 '진라면' 등 전략 제품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중심의 다양한 가격 할인과 시식행사 등 판촉전으로 확실한 2위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다.

삼양은 지난 3월 쫄깃한 파스타 식감을 살린 '허니치즈볶음면'을 새로 내놓았다. 더불어 전통라면이 아닌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끈 '불닭볶음면'에 집중하고 있다.

팔도는 출시 25년을 맞은 '왕뚜껑'의 면발을 보다 두껍게 개선했다. 또 여름이 성수기인 '팔도비빔면'의 활약도 기대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라면 4위 업체로써 점유율 10%미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점유율 높이는게 중요하다"며 "주력상품인 비빔면 왕뚜껑 등 시장 규모를 늘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메르스 공포에 홍삼·비타민 인기 치솟아

면역력 강화 건강식품 관심
어린이 홍삼제품 매출 급증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공포로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홍삼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건강상품군 매출은 20.7% 증가했다. 특히 매출 신장 폭이 가장 컸던 품목은 홍삼이다. 이기간 홍삼 매출은 37.4% 증가했다. 비타민은 22.9%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홍삼상품군 중에서도 정관장 홍이장군·아이패스 등 순수 홍삼농축액의 매출이 40% 증가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를 위한 부모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롯데백화점은 분석했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최근 메르스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비책으로 전국 50곳 매장에 고객 접점 구역인 안내데스크와 물품보관소, 고객상담실, 유아휴게실 등에 손소독제 5000개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 청결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11일 aT센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조동민)는 11~13일까지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2015 제34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800여개 기업, 1800여 부스가 참여한다.

소자본 창업을 비롯 1인가구, 실버 창업 등 최근 성장세를 보이는 트렌드를 한눈에 만날 수 있다.

협회는 이번 박람회를 인테리어 부스비용을 경감시킨 기본 부스로 통일해 브랜드 간 이미지 격차를 줄여 예비창업자가 외형이 아닌 내실있는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박람회 참관은 협회 홈페이지(http://ikfaexpo.kr/)를 통해 사전등록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세정, 해외 브랜드 사업 접는다

써코니·캐터필라 등 추가 물량 도입 계획없어

중견 패션기업 세정(대표 박순호)이 야심차게 전개했던 해외 브랜드 사업을 2년 여만에 접게 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정은 올 상반기로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신발 브랜드 '써코니', '캐터필라' 등을 더 이상 전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재고를 소진 중으로 추가 물량 도입 계획은 없다.

세정은 2013년 스포츠사업부를 신설, 미국 울버린사와 계약을 맺고 운동화 브랜드 써코니를 비롯해 캐주얼 슈즈 브랜드 캐터필라와 아웃도어 슈즈 브랜드인 '고라이트' 등을 들여왔다. 고라이트는 일부만 판매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주력은 써코니와 캐터필라였다.

스포츠사업부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로 구조조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해외 브랜드 라이선스 사업은 그동안 자사 브랜드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왔던 세정으로써는 도전이었다. 또 없었던 스포츠 신발 카테고리를 만들어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울 계획이었다.

특히 써코니는 국내에서는 생소한 브랜드이지만 미국 러닝화 시장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는 115년 전통의 신발 브랜드다. 세정은 써코니의 의류 라인까지 추가 론칭할 계획이었지만 재계약을 포기하면서 이도 무산됐다. 매출도 2000억원 규모로 육성할 계획이었지만 이에 실적은 못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써코니의 국내 전개권은 ABC마트코리아가 가져갈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이 전개할 당시 웰메이드 뿐만 아니라 ABC마트에서도 써코니가 판매됐고 일본 ABC마트에서는 써코니가 자회사로 편입돼 있어 계약이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세계 유전체 석학 이화여대 총집합

美 잭슨랩과 공동 심포지엄

노벨상 후보 찰스 리 교수 등 세계적 과학자 대거 참석

유전체 발전방향 조망 미래 맞춤 의료기틀 마련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최경희)는 세계적 유전체 연구기관인 미국 잭슨랩과 공동으로 유전체 의학 연구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오는 6월 8일(월) 오전 10시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개최한다.

잭슨랩은 1929년 미국에 설립된 세계 최대 동물 질병모델 연구소다. 2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 방대한 의료분야 자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약 1700명의 생명과학 연구자들이 매년 300만 마리 이상의 동물 질병모델 생산과 개인별 맞춤 치료 연구를 통해 암, 노화, 당뇨, 심장병 치료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2012년 미국 코네티컷 주정부는 잭슨랩 산하에 '잭슨랩 유전체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하는 데 총 1조원(한화)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초대 소장으로 찰스 리 박사를 임명한 바 있다.

이화여대와 잭슨랩이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유전체 의학 현황과 발전방향을 조망, 국제적 협력을 통한 미래 맞춤 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화여대가 찰스 리(Charles Lee) 박사를 대학원 생명과학과 초빙석좌교수로 올해 3월 임용하고 잭슨랩과 공동 연구를 시작하는 등 교류관계를 맺은 뒤 처음 열리는 국제 학술행사로서 의미를 갖는다.

심포지엄을 위해 한국인 최초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 선정된 찰스 리 교수와 암 유전체학 연구의 세계적 리더인 에디슨 리우(Edison Liu) 박사를 비롯, 잭슨랩 핵심 과학자 6명이 내한하고 국내 최고의 유전체 연구진이 함께 할 예정이다.

잭슨랩의 회장 겸 CEO인 에디슨 리우 박사는 2001년부터 10년간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인 싱가포르 게놈연구소(GIS)의 소장으로 GIS를 세계적인 연구소로 키웠다. 2007년부터 5년간 인간게놈위원회(HUGO) 회장으로서 세계 게놈 연구의 흐름을 주도해 왔다. 2009년에는 한국·싱가포르·중국 등 11개국 40개 연구기관 93명의 과학자와 함께 '아시아 민족 이동 연구'를 진행해 세계 최고 과학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찰스 리 교수는 2013년 설립된 잭슨랩 유전체 연구소의 소장이다. 2004년 사람과 사람 사이 유전체에 '단위반복변이'라는 구조적 유전체변이가 존재하는 것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의과학자다. 140여 편의 논문을 네이처, 셀, 사이언스 등 세계 유명 과학 학술지에 발표했다.

의학 분야에서 새로운 진단법과 유전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정보 제공과 개인별 맞춤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해 유전체학의 흐름을 바꿨다는 평을 얻고 있다. 미국 한림원 정회원으로 2008년 호암상을 수상했고, 2014년 톰슨로이터가 선정한 노벨 생리의학상 유력 후보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화여대는 심포지엄 외에도 잭슨랩과의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오는 7월에는 미래 유전체 의학자를 꿈꾸는 본교 대학원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미국 잭슨랩으로 파견, '의학 및 실험 포유류 유전학'을 주제로 세계 최고 석학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2주 단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복현명기자 hmbok@metroseoul.co.kr

지난 5월 열린 제17회 담양 대나무축제에서 관광객들이 대나무 뗏목으로 만든 배를 타고 있다.

네티즌이 뽑은 올 '베스트 그곳' 어디?

관광公, 경주 등 9곳 발표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김영호)는 2015년도 네티즌 선정 '베스트 그곳' 9곳을 선정, 발표했다. '2015 네티즌 베스트 그곳'은 올해 전국 44개 광역시군이 신청해 14일간 (5월20일~6월2일)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에서 진행된 네티즌 투표결과(60%)와 여행전문가 심사결과(40%)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지역은 가나다순으로 경주시(경상북도), 곡성군(전라남도), 단양군(충청북도), 담양군(전라남도), 목포시(전라남도), 삼척시(강원도), 서천군(충청남도), 영덕군(경상북도), 평창군(강원도) 등 총 9곳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연말까지 다양한 스토리텔링 여행콘텐츠를 제작하여 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SNS 채널 및 스마트폰 앱 등 통해 선정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대학생 관광기자단 '트래블리더'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여행 부문 파워블로거인 '트래블로거'가 해당 지역의 관광 매력을 취재하고 블로그와 SNS 채널을 통해 홍보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네티즌들이 원하는 여행정보에 부합하는 명품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 국내스마트관광팀장은 올해 '네티즌 선정 베스트 그 곳' 을 통해 유명 관광지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곡성, 서천 등 지방 기초지자체의 관광 매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처: 한국관광공사 국내스마트관광팀 김태윤 팀장(033-738-3491) /최치선기자 chisunti@

민병원 치료내시경팀, 美소화기학회서 수상

보건복지부지정 전문병원 민병원 소화기치료내시경센터의 조원영, 복진현 원장이 지난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015 미국소화기학회주간(Digestive Disease Week)에서 식도 내시경치료 우수사례를 인정받아 미국 소화기내시경 학회주관 2015 Video forum honorable mention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미국소화기학회주간(이하 DDW)은 최대 규모의 소화기 관련 국제 학회로 매년 분야별 전문의와 연구자가 모여 새로운 치료법과 치료사례, 각종 연구 결과 등을 전시·발표하고 논의한다.

민병원 소화기치료내시경팀(조원영, 복진현 원장)은 지난 DDW 2015 치료내시경포럼에서 점막하터널치료법을 통한 내시경치료로 한국 병원에서는 유일하게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에 수상한 소화기치료내시경팀(조원영, 복진현 원장)은 이 외에도 조기위암과 대장암 내시경치료를 1천례 이상 달성했으며, 이전에도 내시경치료비디오로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최고상인 크리스탈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다.

왼쪽부터 복진현과 조원영 원장.

/최치선기자

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보건대회 성료

서울 성명서 채택

지난달 31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 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회 공동 주최기관인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과 국제산업보건위원회 카주타카 코기(Kazutaka Kogi)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폐회식에서 '산업보건서비스 발전에 관한 서울성명서'를 채택하고 대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서울성명서'는 대회 공동 개최기관인 국제산업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공단의 공식 발표문으로, 대회 기간 동안 논의된 주요사항 등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할 내용을 담았다.

서울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전세계 근로자의 4분의 3이 산업보건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연간 230만명이 사망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각 국가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책, 전문가양성, 교육훈련, 정보교환 등 활동에 공동 협력함으로써 국가 간 안전보건 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각국의 실행 결과는 3년 후 2018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제32회 국제산업보건대회에서 발표된다.

한편, 이 대회에는 세계 1백여개 국에서 총 3천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중 외국인 참가자는 약 1천 6백명이 참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복현명기자

지난 5월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가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강강술래 "곰탕 드시고 면역력 키우세요"

한우사골곰탕 60% 할인

최근 메르스 영향으로 면역력 강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가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은 곰탕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달 15일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한우사골곰탕 소용량박스(350㎖·10팩)를 60% 할인된 2만5200원에 판매한다. 보양식 갈비탕박스

(500㎖·10팩)는 50% 할인된 3만5700원이다.

같은 기간 모짜렐라돈가스(720g×2팩)와 칠칠한우떡갈비(360g),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로 구성된 럭키A세트는 40% 할인된 4만5600원, 영양간식이나 술안주로 좋은 갈비맛 쇠고기육포박스(30봉)는 50% 할인된 9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악역, 마음 비우고 편하게 연기했죠

'냄새를 보는 소녀'의 남궁민

남궁민(37)은 올해 데뷔 14년째다. 그동안 몇 차례 부침도 있었지만 지치지 않고 부단히 배우의 길을 걸어왔다. 데뷔 초반에는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활동했다. 특히 2006년에 출연한 유하 감독의 '비열한 거리'를 통해서 충무로의 주목도 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군대에 입대하면서 뜻하지 않은 공백기를 갖게 됐다. 제대 이후에는 영화보다 드라마를 주요 활동무대로 삼았다.

2011년 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로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다시금 증명했다. 그러나 이후 큰 흥행작은 없었다. 대신 그의 이름은 예상밖의 영역에서 관심을 받았다. 2014년에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였다. 남궁민은 가수 홍진영과 함께 실제 연인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로맨티스트의 이미지를 얻었다.

지난달 21일 종영한 SBS 수목드라마 '냄새를 보는 소녀'는 남궁민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작품이었다.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 권재희 역으로 반전 캐릭터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의 로맨티스트를 떠올리면 충격적인 변신이다.

남궁민에게도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 "마음을 비우고 편하게 연기했어요. 그래서인지 '남궁민이 이렇게 연기를 잘했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사실 연기는 어느 정도 한다고 자신 있었는데 말이죠(웃음). 드라마를 많이 봐주시고 연기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온 덕분에 다음 작품을 할 수 있는 탄력을 받아 좋습니다."

드라마 속 권재희는 빼어난 외모에 인기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 셰프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삶 이면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뒤틀린 상처가 있다. 그로 인해 사람을 죽이는 사이코패스 살인마다. 권재희를 연기하면서 남궁민이 가장 신경쓴 것은 "적당한 긴장감"이었다.

"매 회마다 긴장감을 줘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힘을 빼려고 했어요. 등장할 때마다 힘을 주면 보는 사람도 버거울 것 같았거든요. 권재희는 완벽할 것 같으면서도 자기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절제된 느낌으로 연기하려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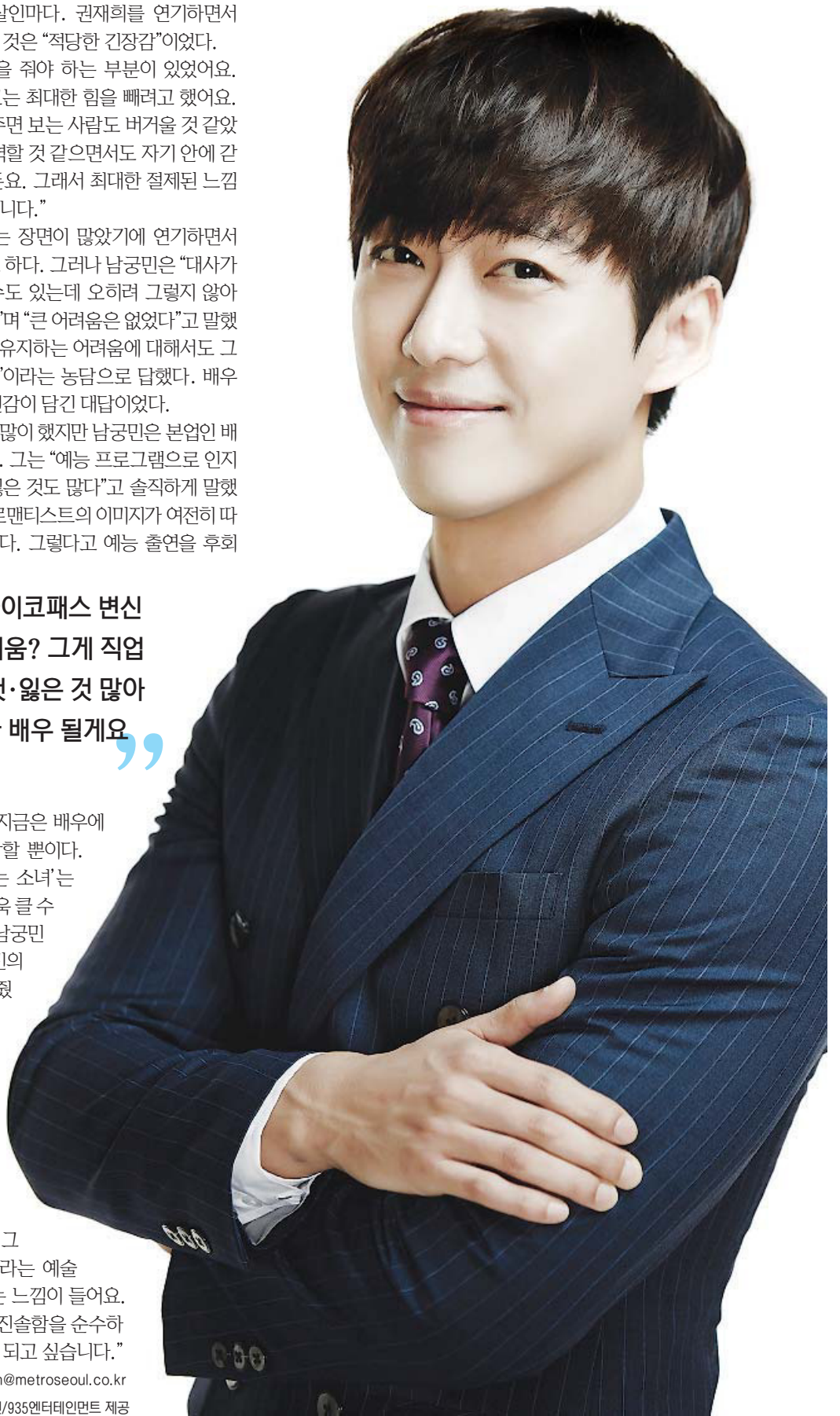
유독 혼자 등장하는 장면이 많았기에 연기하면서 외로움을 느꼈을 법도 하다. 그러나 남궁민은 "대사가 많으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서 감사하게 생각했다"며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쉽지 않은 감정을 유지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그는 "배우는 그게 직업"이라는 농담으로 답했다. 배우라는 직업에 대한 자신감이 담긴 대답이었다.

예능쪽에도 출연을 많이 했지만 남궁민은 본업인 배우에 충실하려고 한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인지도를 얻었지만 대신 잃은 것도 많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예능에서 보여준 로맨티스트의 이미지가 여전히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예능 출연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은 배우에 열중하고 싶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렇기에 '냄새를 보는 소녀'는 남궁민에게 의미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예능인' 남궁민이 아닌 '배우' 남궁민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기 때문이다.

로맨티스트서 사이코패스 변신
감정선 유지 어려움? 그게 직업
예능으로 얻은 것·잃은 것 많아
진솔하고 순수한 배우 될게요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냐고요? 지금은 그런 질문에 답하기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연기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런가 봐요. 이제 연기라는 예술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식상할지 모르겠지만 진솔함을 순수하게 표현하는 연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935엔터테인먼트 제공

star bag

컴백 앞두고 새 로고 공개

6월 컴백을 앞둔 걸그룹 **AOA**가 새로운 팀 로고를 공개했다. 지난 5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사진은 AOA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의상을 입은 한 멤버가 양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새로운 팀 로고의 공개와 함께 신곡 콘셉트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AOA는 오는 22일 컴백 쇼케이스를 연다.

합작영화로 대륙 진출

배우 **임창정**이 한중 합작영화 '임시보표'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돼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 한국 톱스타와 중국 댄스 신동의 이야기로 코믹하면서도 감동적인 내용의 작품이다. 임창정과 함께 중국·호주 혼혈 아역배우 네제밍이 주연으로 출연한다. 영화 '오리 날다'를 연출한 백승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7월 공익근무요원 입대

그룹 SS501 출신 **박정민**(28)이 내달 2일 입대한다. 소속사 지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정민은 내달 2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다. 5인조 SS501 멤버 중 김규종이 지난해 군 복무를 마쳤으며 허영생이 7월 말 제대를 앞두고 있다. 김현중은 지난달 입대했다.

새 소속사에서 활동 재개

1990년대를 풍미했던 방송인 **김예분**이 bob코리아 엔터테인먼트에 새 둥지를 틀고 활동을 재개한다. bob코리아엔터테인먼트 손성민 대표는 지난 5일 "김예분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엔터테인먼트이지만 더욱 다양한 방면에서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다.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린다."

지금껏 전 세계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신데렐라!
2015, 신데렐라가 선사하는 마법같은 무대가 펼쳐진다!

브로드웨이 라이선스 신작
토니상 9개 부문, Emmy어워즈 2개부문, 총 30개 부문 노미네이트 및 수상.

'더 뮤지컬' 설문조사 2015년 기대작 1위

2015년 가장 기대되는 신작-라이선스 뮤지컬

더 뮤지컬 2015년 1월호

순위	작품	비율
1위	〈신데렐라〉	19.8%(75명)
2위	〈팬텀〉	17.7%(67명)
3위	〈베어〉	13%(49명)
4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2.4%
5위	〈로빈훗〉	10.1%

올해 처음 소개되는 라이선스 뮤지컬 중 가장 기대를 모은 작품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신데렐라〉다. 마법같은 무대와 의상 체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동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익숙한 원작 자체에 대한 호감도 한 몫했다. 과연 우리나라의 신데렐라는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이 〈신데렐라〉에 표를 던진 응답자들의 제1의 관심사 였다.

2015, 마법같은 무대를 선사해 줄 신데렐라와 왕자님
그리고 보석처럼 빛나는 앙상블을 찾습니다.

뮤지컬 [신데렐라] 오디션 개최

◈ **공연일시** 2015년 9월 12일 ~ 2015년 11월 8일 ◈ **오디션 일정** 2015년 6월 29일 ~ 2015년 6월 30일

* 자세한 사항은 ㈜엠뮤지컬아트 홈페이지(www.mmusical.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성 첼로 듀오 투첼로스
다음달 두 번째 내한공연

"그냥 와서 듣고 느끼면 됩니다"

남성 첼로 듀오 투첼로스(2Cellos)가 오는 7월 두 번째 내한공연으로 한국 팬과 만난다.

투첼로스는 1986년생 스테판 하우저와 1987년생 루카 술릭 두 명의 첼리스트로 구성된 듀오다. 어린 나이에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과 연주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2011년 1월 마이클 잭슨의 노래 '스무스 크리미널(Smooth Criminal)'의 연주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스타덤에 올랐다.

2012년 11월에는 엘튼 존의 내한공연 오프닝 무대로 한국 팬과 처음 만났다. 지난해 5월 첫 단독 내한 공연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공연은 지난 2월에 발표한 세 번째 음반 '첼로버스(Cellovers e)'의 발매를 기념해 연다. 투첼로스는 최근 메트로신문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내한에서 아주 좋은 추억이 생겼다. 관객 반응도 정말 좋았다. 이번 방문도 기대된다"고 두 번째 내한을 앞둔 소감을 전했다.

투첼로스가 지향하는 것은 "록·팝·영화음악 등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다. 세대는 물론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구분을 뛰어넘어 모두가 들으면서 즐길 수 있는 음악을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라이브 공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투첼로스는 "라이브 공연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한다"며 "공연은 마치 마약과도 같다.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된다. 우리의 공연을 본 사람이 다시 공연을 찾아주는 것도 아주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투첼로스의 내한 공연은 오는 7월 12일 오후 5시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다. 콜드플레이·리한나·너바나·유투·스팅 등 해외 유명 뮤지션들의 커버곡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클래식 첼로 연주도 한다.

공연을 보러 올 관객들에게 투첼로스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고 그냥 오면 된다. 와서 듣고 느끼면 된다"고 전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투어를 하며 연주할 것이다. 우리가 해왔던 대로 계속 음악을 할 것이다. 항상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들려줄 수 있도록 창의적이 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계급 다른 네 남녀의 미스터리 멜로

◆ SBS 새 월화극 '상류사회' 오후 10시

SBS 새 월화드라마 '상류사회'가 첫 방송된다. 서로 다른 계급을 지닌 네 남녀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 그리고 청춘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드라마다. 유이, 성준, 박형식, 임지연이 주연을 맡았다. 1회에서는 재벌가의 세 남매 장예원(윤지혜), 장경준(이상우), 장윤하(유이)의 신경전이 펼쳐진다. 푸드마켓 아르바이트생 이지이 역으로 첫 드라마에 출연하는 임지연의 활약도 확인할 수 있다.

◆ MBC '다큐 스페셜-나는 나쁜 엄마인가요?' 오후 11시15분

"아이 키우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오늘도 스스로를 '나쁜 엄마'라고 칭하며 자책하는 대한민국의 엄마들. '완모(완전 모유수유)'부터 '애착육아'까지 요즘 엄마들의 육아 고민을 들어보고 엄마들이 자책 없이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 tvN '촉촉한 오빠들' 오후 9시40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온지 3년째인 외국인 근로자 코이튼 씨의 사연이 공개된다. 향수병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진 코이튼 씨는 어느 날 집에 도착한 의문의 선물박스를 발견하게 된다.

◆ KBS2 '반려동물극장 단짝-내겐 너무 무거운 너' 오후 8시30분

무거워도 너무 무거운 고양이들이 있다. 김양원(35)씨가 돌보고 있는 짱짱이(6)와 애옹이(12)가 그 주인공이다. 각각 9.4kg, 10.4kg의 고도 비만인 고양이들. 무엇보다 두 고양이에게는 모질게 훈육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

/정리=장병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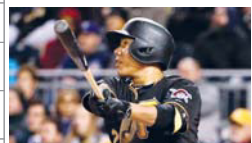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일 (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56회) 05 출동! 슈퍼윙스 25 내 친구 아서 45 발명이 팡팡!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헬로 코코몽(1·2)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곰디와 친구들(영어더빙·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우리말 겨루기	50 오늘부터 사랑해 (46회)	15 불굴의 차여사 (107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1회)	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30 EBS 뉴스 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재)	25 꼬마 철학자 휴고(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꼬마 철학자 휴고(한국어) 50 몬스터 수학나라(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21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16회)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딱 너 같은 딸 (16회)	00 SBS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몬스터 수학나라(한국어) (재) 20 스쿨랜드-절대비법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스타강사특강
22시	00 가요무대	00 후아유 – 학교 2015 (13회)	00 화정 (17회)	00 상류사회 (1회)	45 달라졌어요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쉰들러 리스트>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MBC 다큐스페셜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20 해외걸작드라마 삼총사 시즌2 (9회)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특파원 현장보고 (재)	20 MBC 뉴스 24 4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55 스포츠 특선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EBS 인문학 특강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유자식상팔자 (104회) (재)		00 샘&레이먼의 쿠킹타임 (1·3회)			◆ 해외야구 02:35 피츠버그 vs 애틀랜타 03:10 텍사스 vs 캔자스시티 09:05 세인트루이스 vs LAD
19시	55 JTBC 뉴스룸	40 리틀빅 히어로 (41회) (재)	00 두 남자의 캠핑쿡 (8·10회)	00 쇼킹 70억 (13회)	50 록키 발보아	
20시	50 JTBC 뉴스룸	40 명단공개 (66회)	00 오늘 뭐 먹지? (69·68회)	00 아시아의 열대 – 발리엠 계곡의 마지막 전사		
21시	40 냉장고를 부탁해 (30회)	40 촉촉한 오빠들 (3회)	10 한식대첩 3 (3회)	00 <맨 헌트>카메룬 바카족의 사냥법		
22시			20 한식대첩 3 우승자 레시피 (3회) 35 오늘 뭐 먹지? (69·51회)	00 라이프 해킹 (7·8회)	00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23시	00 비정상회담 (49회)	00 식샤를 합시다 2	45 샘킴의 함께쿠킹 (1·2회)	00 <사상 최악의 참사> 알프스 곤돌라 추락		
24시	30 화이트 스완 (2회)	00 코미디 빅리그 (124회) (재)	10 2015 테이스티로드 (20회)	00 <극한직업>필리핀 금광	20 신들의 전쟁	

바르셀로나 '빅 이어' 거머쥐다

라키티치·수아레스·네이마르 연속골 3-1로 유벤투스 꺾고 트레블 달성

스페인 FC바르셀로나가 '이탈리아 자존심' 유벤투스를 꺾고 통산 5번째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함께 '트레블'(정규리그·FA컵·챔피언스리그 동반 우승) 달성의 영광을 안았다.

바르셀로나는 7일(한국시간) 독일 베를린의 올림피아 슈타디온에서 열린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이반 라키티치-루이스 수아레스-네이마르의 릴레이골을 앞세워 알바로 모라타가 한 골을 만회한 유벤투스를 3-1로 물리쳤다.

이날 승리로 바르셀로나는 2010-2011 시즌 이후 4년 만에 통산 다섯 번째(1992년·2006년·2009년·2011년·2015년) 우승컵 '빅 이어'를 차지했다.

또 우승 상금 1050만 유로(약 131억원)와 본선 참가비 860만 유로(약 106억원), 조별리그부터 준결승까지 누적상금, TV중계권료 등 5800만 유로(약 730억원)를 챙겼다.

여기에 이번 시즌 정규리그와 국왕컵을 이미 석권한 바르셀로나는 UEFA 챔피언스리그 정상까지 차지하며 2008-2009시즌 이후 6년 만에 팀 통산 두 번째 트레블 달성의 대기록을 완성했다.

7일 새벽 유벤투스를 꺾고 2014-2015 유럽축구연맹(UEFA0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한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우승컵 '빅 이어'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번 시즌 무려 120골을 합작한 MSN(리오넬 메시-루이스 수아레스-네이마르) 라인을 가동한 바르셀로나는 모라타-카를로스 테베스 투톱을 앞세운 유벤투스를 맞아 전반부터 일방적인 공세에 나섰다.

바르셀로나의 첫 득점은 킥오프 4분 만에 나왔다.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볼을 잡은 네이마르가 페널티지역 안쪽으로 쇄도하는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에게 패스했다. 이니에스타는 곧바로 골대 앞에 있던 라키티치에게 연결해 라키티치는 논스톱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다.

유벤투스는 후반 5분 '이적생' 모라타가 동점골을 넣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후반 23분 메시의 중거리 슈팅이 골키퍼 부폰의 선방에 막혀 흘러나오자 수아레스가 재빨리 슈팅으로 연결해 결승골을 꽂았다. 이어 후반 추가시간 네이마르가 승부에 쐐기를 박는 마무리골로 마침표를 찍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추신수, 2안타 2타점 '펄펄'

강정호, 대타출전 진루타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멀티히트를 기록하고 팀의 3연승에 힘을 보탰다.

추신수는 7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커프먼스타디움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2번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출전, 5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을 올렸다. 시즌 타율은 0.242에서 0.246(195타수 48안타)으로 올랐다.

추신수는 1회 1사 후 주자없는 상황에서 캔자스시티 선발투수 요다노 벤추라를 상대해 우전안타로 출루했다. 이어 프린스 필더, 미치 모어랜드의 연속 안타로 홈을 밟아 선제 득점을 올렸다.

팀이 2-0으로 앞선 2회초 1사 2, 3루 상황에서 맞은 두 번째 타석에서는 좌익수 쪽으로 2루타를 날려 주자 둘을 모두 홈으로 불러들였다. 이후 4회와 7회에는 삼진으로 물러났다. 9회에는 중견수 뜬공으로 잡혔다.

4-2로 이겨 3연승을 달린 텍사스는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에서 두 번째로 30승(26패) 고지를 밟았다.

한편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라인업에서 제외됐다가 2-4로 뒤진 8회초 1사 1,2루 찬스에서 대타로 타석에 들어서 2루수 쪽으로 느린 땅볼을 쳐 아웃됐다. 하지만 이 사이 주자 두 명 모두 진루에 성공해 2사 2,3루로 찬스를 살려갔다. 이어 후속타자 그레고리 폴랑코가 2타점 중전안타를 때려 4-4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강정호는 8회말 수비 때 투수 자레드 휴즈와 교체됐다. 시즌 타율은 0.277에서 0.275(120타수 33안타)로 떨어졌다. 피츠버그는 9회말 1점을 내줘 4-5로 패했다. /김민준기자

캐나다, 개막전서 중국 제압

FIFA 여자월드컵 한국 10일 오전 8시 브라질과 첫판

캐나다가 2015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개최국 캐나다(FIFA 랭킹 8위)는 7일(한국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열린 대회 첫날 조별리그 A조 1차전 중국(16위)과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얻은 페널티킥을 결승골로 삼아 1-0으로 이겼다.

중국은 자오룽이 페널티 지역 안에서 캐나다 아드리아나 리온에게 반칙을 저질러 분루를 삼켰다. 전반 23분 왕리쓰의 프리킥이 캐나다 골대를 직접 맞히기도 했으나 중국은 결국 후반 추가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패배를 떠안았다.

이어 열린 경기에서는 네덜란드(12위)가 뉴질랜드(17위)를 역시 1-0으로 꺾고 첫 승을 따냈다.

2003년 미국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본선 진출에 성공한 우리나라는 브라질, 스페인, 코스타리카와 함께 E조에 편성됐다. 10일 오전 8시 브라질과 1차전을 치른다. /김민준기자

◆ **7일 전적 (A조)**

캐나다(1승) 1(0-0 1-0)0 중국(1패) / 네덜란드(1승) 1(1-0 0-0)0 뉴질랜드(1패)

7일 오전 캐나다에서 열린 FIFA 여자월드컵 개막전 캐나다와 중국의 경기. /AP연합뉴스

'슈틸리케호' 오늘 소집

월드컵 2차예선 장도 새 얼굴 찾기 주력

한국 축구가 월드컵 9회 연속 본선 진출을 향한 장도의 첫 걸음을 내디딘다.

울리 슈틸리케(사진)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8일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소집된다. 23명의 태극전사는 이날 오후 곧바로 인천공항에서 출국,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 인근 샤알람으로 이동해 여장을 푼 뒤 11일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평가전에 나선다.

이어 12일 태국 방콕으로 옮겨 16일 예정된 미얀마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첫 경기에 나선다.

슈틸리케 감독의 목표는 3년 뒤 월드컵 본선 무대에 나설 자격을 갖춘 '옥석'을 고르는 것이다.

이번 원정을 앞두고 슈틸리케호는 구자철, 박주호(이상 마인츠), 김보경(위건),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등이 기초 군사훈련 입소하면서 원정 명단에서 제외했다. 여기에 기성용(스완지시티), 김영권(광저우 헝다), 김주영(상하이 둥야), 윤석영(퀸스파크 레인저스), 김은선(수원 삼성)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뽑지 않았다.

이 때문에 참신한 새 얼굴을 대거 기용했다. K리그에서 기량을 한껏 뽐내는 스트라이커 강수일(제주)을 비롯해 최보경(전북), 임채민(성남FC), 정동호(울산), 정우영(빗셀 고베) 등 아직 팬들에게 조금은 낯선 얼굴들도 슈틸리케 감독의 선택을 받았다.

이번 동남아 원정에서 만날 UAE와 미얀마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각각 73위와 143위로 한국(58위)에 비해 한 수 아래의 전력으로 평가된다. /김민준기자

"메르스 빨리 진정되면 좋겠어요"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 귀국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1·연세대·사진)가 7일 오전 귀국했다.

손연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타슈켄트 월드컵을 무사히 잘 마쳐서 다행"이라며 "당분간 아시아리듬체조선수권대회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손연재는 지난달 말 끝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월드컵에서 개인종합 동메달, 후프 종목 동메달을 획득했다.

손연재는 10일부터 충북 제천에서 열리는 제7회 아시아리듬체조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이어 다음 달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우려로 제28회 회장배 전국리듬체조대회는 잠정 연기됐다.

이와 관련, 손연재는 "국내 대회가 많지 않은데 연기돼 아쉽다"며 "메르스가 더 확산이 안 되고 진정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준기자

날씨

6/8 월 일출시각 05:11 일몰시각 19:5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4	3	7			2
		3	8		9	4		
	4	5	7		6	3	9	
	3						8	
	9	6	3		5	2	7	
		7	1		8	6		
4			2	6	3			7

3				6				2
	8			5				
	2		1		3		7	
4		2	6					
		6	4		8	1		
					9	3		4
	6		8		5		3	
				9			8	
7				4				9

스도쿠 정답

9	1	4	6	5	2	7	3	8
6	5	8	4	3	7	9	1	2
2	7	3	8	1	9	4	6	5
8	4	5	7	2	6	3	9	1
7	3	2	9	4	1	5	8	6
1	9	6	3	8	5	2	7	4
5	2	7	1	9	8	6	4	3
4	8	9	2	6	3	1	5	7
3	6	1	5	7	4	8	2	9

3	9	5	7	6	4	8	1	2
1	8	7	9	5	2	6	4	3
6	2	4	1	8	3	9	7	5
4	3	2	6	1	7	5	9	8
9	5	6	4	3	8	1	2	7
8	7	1	5	2	9	3	6	4
2	6	9	8	7	5	4	3	1
5	4	3	2	9	1	7	8	6
7	1	8	3	4	6	2	5	9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Symptoms of MERS, must know facts

<메르스 증상, 꼭 알아야 할 것들>

MERS is a respiratory syndrome disease which is contagious, mainly due to corona virus.

The symptoms of MERS are fever, cough, difficulty in breathing, sickening and diarrhea. The symptoms are noticeable at least between 2 to 14 days and it is not contagious before the symptoms emerge.

MERS can be infected through making contact through coughs or sneezes. In order to prevent this, you must wash your hands with soap and must not touch your eyes, nose or mouth without washing them.

If any intimate contact was made with the MERS patie4nts or have any MERS suspicion symptoms, you must see your doctor and take action.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의정부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 설치된 메르스 비상대책반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상황보고를 받고있다. /연합뉴스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한 급성 호흡기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다. 증상은 감염 후 최소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르스는 일반적으로 2m 이내에서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한다.

환자와 밀접 접촉을 했거나,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직장에서 자리를 못잡아 고민입니다 노력에 따라 수입 생기는 일 찾으시길

사주신청 75년 11월 29일 음력 11시30분

Q 하도 답답해서 제가 글을 올리게 되네요. 저는 생명사 보험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입사해서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동기들도 98% 퇴사 했고요. 지인들도 다들 그만두라고 난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나간다고 뾰족한 수가 없어 나가는 것도 있는 것도 쉽지 않네요. 나가서도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은 원치 않거든요. 결혼 운은 어떤지요. 나이만 먹고 직장은 자리도 못 잡고 답답합니다. 처음 글 올린 게 저장이 안 되고 두 번이나 신청이 안돼서 테스트용으로 내용 없이 잘못 올린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A 사주에 여러 살(殺)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연월(年月)에 형살(刑殺)이 있고 묘년자월(卯年子月)생으로 자묘형(子卯刑)이라 이름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모든 곳에서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직장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사는 재미가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사는 재미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괴로움만 남게 되는데 살이 있는 사주들은 없는 경우보다 어려움이나 일의 진척이 늦고 괴로움도 가중됩니다. 특히 재물에 살의 기운이 형성되어 돈 벌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직장 관계가 어려운 것은, 인생을 어렵게 만들어 가는 자신의 사주 결과인 것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신을 원망해서라도 답이 나온다면 모르겠으나 낙담만 하고 있을 것도 못됩니다. 달리 방법이 없으나 방법을 찾아야하겠지요. 무조건 낙담할일이 아닙니다. 자기와 주변지인들 감정을 다스리고 자기분야 실력 있는 직원을 모델로 배우면서 부족한 것은 양보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져가면 힘든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한다'고 밀어 놓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하면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게 인생입니다. 정규적으로 꼬박꼬박 때만 되면 봉급이 나오는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되기 보다는 비정규적이지만 노력에 따라 수입이 생기는 직업의 운이 승발하고 있으므로 운도 따라 바뀌게 됩니다. 배우자궁에 상관(傷官:관에 상처를 줌과 같은 형상)으로 똑똑하여 독신으로 지내려는 경향이 있어 결혼이 늦기도 합니다. 이성에 관한 상담은 신청이 어려워도 지면상 다시 상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6월 8일 (음 4월 22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상하가 단결하여 만사형통입니다. **60년생** 뜻밖의 일로 쉽게 이루어집니다. **72년생** 부귀공명을 누리게 됩니다. **84년생** 붙어봐야 승산 없고 이겨 봐야 덕이 없습니다.

49년생 지금은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61년생** 일은 어렵고 마음은 답답합니다. **73년생**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서 작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85년생** 상당히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50년생 운이 좋지 않으니 자제가 필요합니다. **62년생** 이미 이룬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74년생** 좋은 운은 아니지만 큰 문제도 없습니다. **86년생** 어려움은 있지만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51년생 기회가 왔으니 더욱 정진하세요. **63년생** 옛친구나 동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75년생** 내가 속한 곳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87년생** 허황된 욕심보다는 현실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52년생 여행이나 외출은 미루는게 좋습니다. **64년생**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6년생** 어려움이 있지만 곧 해결됩니다. **88년생** 주의의 말보다는 본인의 판단을 믿는 게 필요합니다.

53년생 어려운 사람에게 덕을 베풀면 길합니다. **65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77년생** 욕심을 부리면 손해를 봅니다. **89년생** 여행을 떠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54년생 명예와 인기가 모두 좋습니다. **66년생** 하는 일마다 잘 이루어집니다. **78년생** 부부나 이성운이 좋고 사업방면에도 희소식이 있겠습니다. **90년생** 일에 대한 마무리와 말조심이 필요합니다.

55년생 지금은 힘들지만 곧 나아질것입니다. **67년생** 신중함보다는 추진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9년생** 주위에 덕을 베풀면 더 큰 이득을 얻습니다. **91년생** 운이 길하고 마음도 편한 하루입니다.

56년생 모든 것이 순탄한 하루입니다. **68년생**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0년생** 이성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92년생** 지금은 윗 분의 말씀을 듣는 게 좋습니다.

57년생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69년생** 다른 사람보다는 본인 일에만 집중하세요. **81년생** 성급한 추진보다는 기다림이 더 필요합니다. **93년생** 지금은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58년생 명예가 오르는 길한 하루입니다. **70년생** 부부와 가족간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82년생** 사업운이 길하고 사세가 확장되겠습니다. **94년생** 친구나 동료간에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59년생 휴식과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71년생** 돈쓸 일이 많아지고 약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83년생**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95년생** 모든 것이 평탄한 하루입니다.

'국민 바보' 시대 개막

송병형의 판생각

정부 주도 하에 국민 바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정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나온 지 19일째가 되는 7일에야 확진환자가 나온 병원 6곳과 이들이 거쳐 간 병원 18곳을 공개했다. 이미 인터넷 상에 병원들이 표시된 지도까지 공개된 뒤였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명단 공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병원 명단 공개 이유에 대해 "추적 관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 감염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메르스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는 "환자의 병원 기피, 의료계의 진료 기피, 병원이 있는 지역사회의 혼란, 지역경제 침체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국민의 성숙한 대응을 기대할 수 없어서 정보를 통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리다.

문 장관은 지난 5일 긴급브리핑에서 평택성모병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메르스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곳이다. 하지만 당시 다른 병원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의 전체 명단 발표는 언론을 통해 삼성서울병원의 실명이 공개된 뒤 나왔다. 삼성서울병원은 제2의 진원지로 주목받는 곳이다. 묘한 시점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서울대병원을 능가하는 병원이라고 삼성 측이 선전해 온 곳이다. 이건희 삼성회장이 누워 있는 병원이기도 하다.

단순한 우연에 불과했을까. 총리 대행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현지시간) 영국 출장 중에 런던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일 메르스 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병원 입장에 서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미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비슷한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진 시점이었다.

같은 날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우리 정부의 비밀주의를 비난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홍콩 당국이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해서 부득이하게 한국을 다녀온 여행객들에 대한 방역 체계를 강화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일본 당국은 한국과 정보공유 약정이 있는데도 (한국이) 어떤 병원인지 알려주지 않는다"(일본 교도통신), "한국은 의미없는 비밀주의로 국제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미국 허핑턴포스트). 우리 정부는 국제 여론마저 무시했던 셈이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시선마저 아랑곳하지 않은 일이 또 있다.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은 철저한 비공개로 지난 달 1차심리가 끝났다. 5조원가량이 걸린 소송이다. 아랍에미리트 왕족 만수르의 회사가 제기한 또 다른 ISD 소송은 소송제기가 있고서야 알려졌다. 이 소송은 지난해 11월 예고서가 이미 청와대에 전달됐지만 내용은 여전히 비밀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소송 현장의 인터넷 생중계까지 떴지만 정부는 '소송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철저히 관련 내용을 함구하고 있다. 론스타 소송은 우리 정부 관료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 국민은 이들의 진실된 모습을 알아서는 안된다는 소리다.

주택거래량 증가, 좋지만은 않은 이유

기자 수첩

박 선 옥
<경제부 기자>

주택시장이 봄 이사철이 마무리되고도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5월 중 최고인 1만2247건을 기록한 것. 또 다세대·연립주택(5650건)과 단독·다가구주택(2105건)으로 연중 최고치에 근접했다.

거래량의 증가는 30대 젊은 층이 내 집 마련에 나선 데서 기인한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5월 30대 이하의 주택매수 비중은 25.5%로 지난해 하반기(23.1%)보다 상승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정부는 반가운 기색이 역력하다. 죽어가던 거래시장을 살리겠다고 돈을 풀고, 각종 규제를 완화한 게 드디어 빛을 본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30대가 집을 사는 속내를 살펴보면 주택 거래량 증가를 반가워하기만은 어렵다.

최근 지인이 서울 강북지역에 아파트를 샀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결혼을 하면서 얻은 신혼집의 전세 보증금이 불과 2년 만에 수천만원 오르자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단다.

그런데 자가주택자가 됐어도 여전히 마음은 무겁다고 했다. 외벌이인 그가 매달 월급의 절반이 넘는 170만원을 은행에 10년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안이 없어 덜컥 집을 사기는 했지만 본인이 말로만 듣던 하우스푸어가 되는 건 아닌지 고민스럽다는 것이다.

기자를 비롯해 요즘 주변에서 이 지인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늘어나는 주택 거래량을 보면 30대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것 같아 마냥 좋아할 수가 없다.

여름 건강 지켜주는 여름 과일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입맛은 없고 입이 자꾸 마르는 여름철,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과일은 갈증 해소에도 좋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식욕을 자극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데도 좋다.

여름 과일의 대표적인 수박이나 참외는 수분 함량이 90%정도라서 무더위를 식히고 갈증을 없애는 데 탁월하다. 동의보감에도 수박은 "갈증과 더위를 없앤다"고 기록되어있듯이 여름철 더위에 지쳐 기운이 없거나 더운 열기가 위로 솟구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도움이 된다.

특히 수박의 시트룰린, 아르니긴 성분은 기력 회복을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준다. 수박이나 참외는 서늘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몸에 열이 많은 양인들에게 적합하다.

참외의 경우 신장 기능을 보하기 때문에 수분 배출이 잘 되지 않아서 몸이 잘 붓는 사람들에게 좋고, 신장이 약한 소양인들에게 좋은 과일이다.

포도는 당분이 많아서 허기가 지고 기운이 없을 때 빨리 에너지를 낼 수 있게 돕는다. 유기산,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게 돕는다.

또한 씨앗과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모두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포도에 풍부한 카테킨,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들은 허약해지기 쉬운 여름철 면역력을 높여주며, 혈액과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도 좋다.

자두에 들어 있는 비타민C는 피로 해소에 좋다. 자두가 서늘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몸에 열이 많아 여름철에 맥을 못 추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피로를 덜어주고 기운을 차리는 데 좋다. 비타민A가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부의 손상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여름철 탄력 있는 피부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복숭아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서 숙취 해소를 돕고, 폐 기능을 강화하기 때문에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에게 좋다. 또한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심장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준다. 피로 회복, 신진대사 촉진에 좋으며, 대부분의 여름 과일과 달리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몸이 찬 음인들에게 적합하다.

/김소형 한의사(bonchotherapy.com)

긴급재난문자 시스템도 엉터리

소비자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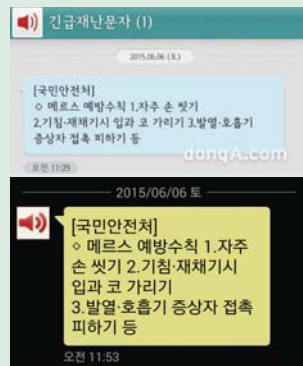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6일 발송한 메르스 관련 '긴급재난 문자'를 받은 시점이 시민 개인별로 최고 30분 이상 시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시민은 "진짜 긴급상황이면 몇분 몇초 사이에 생사가 갈릴 수 있다.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게 복불복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재난 문자서비스도 부실이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7일 "국민안전처의 요청에 따라 가입자들을 지역별로 나눠 집단 문자 발송 서비스를 했다. 이미 매뉴얼화 된 상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것이어서 개인별 시차 발생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은 "이번 경우에는 재난문자를 조금 늦게 받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만약 독가스 누출 같이 정말 긴급한 재난 상황인 경우 20~30분이면 생사가 갈릴 수 있는 시간이다. 긴급재난 시 국민안전처가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휴대폰 문자서비스인 점을 감안할 때 모든 국민이 거의 동시에 문자를 받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실제로 6일 언론에 공개된 메르스 긴급재난문자 도착 시간을 보면 최대 30분 이상 차이가 난다.

동아닷컴이 관련 기사에 인용한 사례의 경우 문자 수신 시각이 오전 11시29분이다. 반면 메트로신문에 거론된 한 회사원 ㄱ씨의 경우 최초 수신시각이 오전 11시 53분이고, 3번째 문자 도착 시각은 오후 12시2분이다.

동아닷컴의 6일 기사에 나온 사례(위)와 회사원 ㄱ씨가 받는 메르스 긴급재난문자. /동아닷컴 제공

ㄱ씨가 첫번째 문자 수신 시 상황을 인식했어도 동아닷컴 사례의 시민보다 상황 인지 시간이 24분이나 늦은 셈이다.

만약 ㄱ씨가 3번째 문자를 받고서야 내용을 확인했다면 동아닷컴 사례 시민 보다 33분이나 늦게 상황을 알게 됐을 것이다.

이 정도 시간차면 뒤늦게 문자서비스를 받은 시민의 경우 '긴급문자'라는 게 사실상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안전처와 이동통신사의 협의에 따라 태풍·호우·폭설·지진 등 각종 재난이 났을 때 행동요령 등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6일 문자서비스는 국민에게 메르스의 위험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발송했다. 휴대폰 환경설정, 시·군·구 경계지점에 따라 수신 건수 등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민규기자 unha@